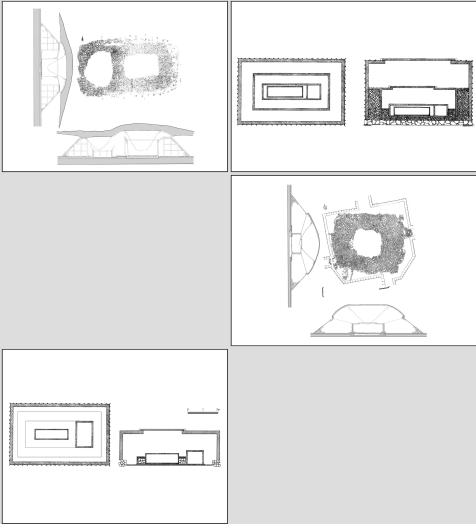




신라 적석목곽분 기원 연구의 방향

Research Directions on the Origins of the Silla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최 병 현
충실대학교

I. 머리말

II. 연구사적 검토

1. 2원적 계통관과 북방기원설
2. 중산리유적의 발굴과 목곽묘의 자체발전설

III. 영남지방의 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의 선행구조

1. '사방적석식'과 적석목곽분의 선행구조
2. 동래 복천동유적의 목곽묘 구조
3. 경주와 주변지역의 목곽묘 구조

IV. 기원 연구의 방향

V. 맺음말

국문 요약

신라가 낙동강 이동지방을 지배하는 마립간시기, 즉 신라 전기에 수도 경주의 중심고분군에 출현한 적석목곽분은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두 유형이 큰 시차 없이 출현하여 각각 신라 중앙의 왕실과 귀족집단의 묘제로 조영되었다. 그러한 적석목곽분의 구조 가운데 묘곽의 형식이나 상부적석식의 묘곽 내 목곽과 사방적석 등은 신라 초기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의 구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여, 그 기본적인 계승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지상적석식 초기 대형분의 복잡한 내부구조와 거대 고층으로의 출현, 상부적석식에서 묘곽 위의 상부적석과 호석으로 보호된 원형 고대봉토의 출현은 전시기 석재충전목곽묘로부터의 자생적인 진화·발전으로 보기 어렵다. 월성북고분군에서 고층 적석목곽분의 출현은 신라 초기 석재충전목곽묘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발전과정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신라 전기양식토기가 성립하는 4세기 중엽쯤의 돌연한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사로국시기에도 외부 세계와 접해왔고, 고대국가로 성립하면서 중국에 견사하는 등 외부 세계와 접촉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한 신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마립간시기에 적석목곽분이 출현하여 왕실 무덤부터 고층화한 데에는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이나 충격도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이 신라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관련하여 아직 필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필자의 주장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학계에 제시된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이나 계통론은 사실 모두 쉽게 입증되기 어려운 가설들일 뿐이다. 1990년대 초 울산 중산리유적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신라 적석목곽분의 목곽묘 자체발전설이 제기된 이후 이를 입증해 보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의 구조를 왜곡하거나 확대·과장한 해석들이 난무하였다. 가설을 입증하려는 노력은 더욱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정확한 사실들에 기초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료를 왜곡하거나 확대·과장하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보다는 차라리 미래의 새로운 자료 출현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하다.

주제어 : 신라 초기, 신라 전기, 석재충전목곽묘, 적석목곽분, 경주 월성북고분군

I. 머리말

경주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분의 출현은 신라 고분문화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였으며, 그것은 점토충전·석재충전 주부곽식 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신라 초기 고분문화로부터 적석목곽분을 최상위 묘제로 한 신라 전기 고분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곽분은 신라사에서 ‘마립간시기의 묘제’였으며(최병현 1992), 마립간시기는 진한 소국의 일원이었던 사로국으로부터 고대국가로 발전한 신라가 낙동강 이동지방을 지배해나갔던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마립간시기 신라 중앙의 최고 위계 고분들의 묘제인 적석목곽분의 기원이나 원류는 과거 일찍부터 신라 고고학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계에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이나 계통에 대해 논의되어 온 과정은 1990년대 초 울산 중산리유적에서 신라 초기의 석재충전목곽묘가 조사되고 그 결과가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와 그 이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이전까지는 신라 적석목곽분과 직접 연결되는 그 선행구조가 한반도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기원이나 계통이 논의되었다. 당시까지는 유적조사의 미비로 목곽과 적석, 호석과 봉토로 이루어진 신라 적석목곽분의 구조 가운데 그 핵심인 목곽이 적석으로 덮인 매장주체부의 선행구조라고 할 만한 것이 한반도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이 시기의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이나 계통에 대한 논의를 크게 2원적 계통관과 북방기원설로 나누어 정리한 바 있다(최병현 1990·1992).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울산 중산리유적에서 신라 초기에 점토충전목곽묘에 이어 묘광과 목곽 사이를 돌로 충전한 석재충전목곽묘가 발생한 것이 밝혀지면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석재충전목곽묘는 이전의 점토충전목곽묘로부터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해가는 중간 형태로 해석되었고, 이에 따라 적석목곽분은 2원적 계통이나 북방 기원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전시기 영남지방의 목곽묘로부터 자생적으로 진화·발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실 적석목곽분의 두 유형, 즉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 가운데 상부적석식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해석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지상적석식 초기 대형분의 복잡한 내부구조와 거대 고층으로의 출현이 문제였다. 울산 중산리유적의 발굴조사를 계기

로 영남지방 목곽묘로부터 적석목곽분의 자생 발전을 주장한 연구자들은 지상적석식 초기 대형분의 복잡한 내부구조의 선행 구조를 전시기 목곽묘에서 찾고자 하였고, 거대 고총의 성립도 적석목곽분의 자체 진화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세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 문제는 별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의 구조를 왜곡하거나 확대·과장한 해석이 난무하였을 뿐이다. 고분 구조의 왜곡 해석은 다시 발굴현장으로 순환되기까지 한다. 이 글은 과거 필자의 기원관을 재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새로운 기원관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동안 학계에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온 내용들을 짚어 보면서 필자의 변화된 생각도 밝혀, 앞으로 학계의 연구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한다.

Ⅱ. 연구사적 검토

1. 2원적 계통관과 북방기원설

2원적 계통관이란 신라 적석목곽분의 목곽과 적석부를 분리하여 그 기원을 한반도의 선행묘제에서 따로따로 찾아, 그것들이 결합하여 신라 적석목곽분이 성립하였다고 본 견해들이다. 1921년 금관총의 우연한 발견에 이어 1924년 신라 적석목곽분으로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시행된 금령총과 식리총의 발굴조사보고서 말미에 梅原末治(1932: 264~268)가 신라 적석목곽분의 목곽은 낙랑군시대의 목실(곽)분에서, 적석은 대구 대봉동 지석묘와 같은 적석식지석묘에서 온 것이라고 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후 유적조사의 진전에 따라 2원적 계통관의 내용은 변해왔는데, 북한에서 강서 태성리유적이 발굴조사된 이후, 박진욱(1964)은 일제강점기에 수습조사된 경주 입실리유적을 강서 태성리와 같은 토광목곽묘 유적으로 보아 신라 적석목곽분은 대구 대봉동형의 변형고인돌에 채지 토광묘의 목곽이 도입되어 발생한 무덤 형식이라고 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영남지방에서 원삼국시기 목관묘와 목곽묘가 조사되기 시작하였고, 경주에서도 1979년부터 조양동유적에서 원삼국 전기의 목관묘와 후기의

목곽묘가 조사되면서 2원적 계통관은 다시 변모되었다. 강인구(1981)는 고구려의 방형 적석총이 남하하여 재지 토광목곽묘의 목곽과 결합하여 신라의 적석목곽분이 성립되었는데, 처음에는 순수 적석총으로 축조되었으나 후에 석실봉토분의 영향으로 원형의 봉토가 덮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신라 적석목곽분의 적석부를 고구려 적석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 기원을 대봉동 지석묘에서 찾은 이전의 견해들보다 시간적인 간격을 좀 더 좁혔지만 사실상 목곽, 적석부, 봉토를 모두 분해하여 3원적으로 그 계통을 추적한 것이었다. 신라 적석목곽분의 적석부가 고구려 적석총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은 그 후 최종규와 신경철로 이어졌는데, 그들은 그것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이는 서기 400년 고구려군 남정의 결과라고 해석하였다(최종규 1983; 신경철 1985: 92~93).

북방기원설은 이와 같이 신라 적석목곽분의 구조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들을 분해하여 각각 그 기원이나 계통을 한국 상고시기의 묘제에서 찾는 2원적 계통관과는 달리 북방아시아의 목곽분문화를 신라 적석목곽분의 원류로 보는 입장이다. 김원룡이 신라 적석목곽분은 기원전 1500년경 흑해 북안에서 일어난 스루브노 청동문화의 목곽분이 시베리아 일대로 퍼진 시베리아 스텝 목곽분의 동단 마지막 형식이라고 한 것(김원룡 1972), 이은창이 시베리아와 알타이지방의 목곽분이 신라 적석목곽분의 원류라고 한 것(김택규 · 이은창 1978: 135)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종래의 견해들 가운데 2원적 계통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북방기원설을 좀 더 구체화시킨 바 있다. 요컨대, 2원적 계통관에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적석부가 고구려 적석총에서 왔다는 견해는 서기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한반도 남부지방의 고분문화가 변동되었다는 남정 영향설과 결합하여, 신라 적석목곽분의 출현이 서기 400년 이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측이며, 신라 적석목곽분은 그 이전에 이미 출현하여 있었다고 보았다. 2원적 계통관에서는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본 구조 가운데 매장주체부인 적석으로 덮인 목곽을 목곽과 적석으로 분해하여 따로따로 그 기원이나 계통을 추적하고 있을 뿐 圓形의 高大봉토와 호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기원도 한반도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신라 적석목곽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구조의 소형분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대형분인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황남대총 남북분과 천마총은 대형분에서 초기 형식의 복잡한 구조가 간결하고 단순한 구조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현재로서는 그 중 가장 이른 시기 대형분인 황남대총 남분이 원형에 가까운 구조를 가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황남대총 남분의 구조는 목조가구를 설치하고 냇돌을 쌓아올린 적석부, 내외곽 사이에 잔자갈이 채워진 2층의 목곽, 石壇으로 둘러싸인 2층의 목관으로 구성된 매장주체부와 적석부 위의 봉토 중에서 발견된 목조가구 흔적, 그리고 거대한 원형 봉토와 호석을 가진 것으로 그 구조 각부를 분해하여 따로따로 그 기원을 추적하여도 한국의 상고시기 묘제에서는 그 선행 구조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은 2원적 계통관처럼 그 구조를 분해하여 추적할 것이 아니라 목곽과 적석부, 원형의 고대봉토와 호석이라는 기본구조 전체를 일체적 구조로 보아야 할 유라시아 대륙으로 넓혀 그 원류를 추적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필자는 남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알타이지방과 몽골 북쪽의 (적석)목곽분들을 살펴 그 가운데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전체 구조와 특징적인 세부 구조의 원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최병현 1990 · 1992).

2. 중산리유적의 발굴과 목곽묘의 자체발전설

그런데 그 무렵 울산 중산리유적에서는 원삼국 후기의 목곽묘를 이은 신라 초기의 석재충전목곽묘, 즉 묘광과 목곽 사이를 돌로 충전한 목곽묘들이 발굴되면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 또는 계통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희준(1996: 297~298)이 지적한 것처럼 돌이켜 보면 경주 안계리유적, 울산 양동유적, 그리고 동래 북천동유적 등에서 이미 석재충전목곽묘가 조사된 바 있었지만, 울산 중산리유적이 발굴조사되기 전까지 학계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였고, 필자는 편년상 이들이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의 출현 이후의 고분들이므로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최병현 1992). 그러나 중산리유적에서는 석재충전목곽묘가 신라 초기에 발생하였으며, 신라 전기까지 계속 축조되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다(최병현 2015).

발굴자인 이성주(1992: 39, 42)는 처음에는 중산리유적에서 원삼국시대 목곽묘로부터 완성형의 적석목곽묘를 거쳐 퇴화되는 과정이 단선적으로 이해되지만, 중산리유적이 경주 중심지의 고분군도 아니고 신라 최상위 계급의 고분도 아니므로 “중산리 목곽묘의 전개과정을 통해 … 황남대총이나 천마총과 같은 목곽적석분의 일체적 구조가 출현하는 계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즉 북유라시아 적석목곽분과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는 곧 “중

산리유적의 묘제는 그 변형과정의 기본적인 틀만큼은 중심지의 묘제 변천과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중산리유적의 자료로서 신라묘제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바꾸고, 신라 적석목곽분은 중산리유적에서 3세기 중엽부터 축조되기 시작하는 목곽 사방에 돌을 충전한 ‘日’자형 동혈주부곽식 목곽묘, 즉 “신라식목곽묘의 전통과 범주 내에서 최고위계의 대형분 축조방법으로 특이한 발전을 보인 것”(이성주 1996: 57)이라고 하였다. 그가 여기서 적석목곽분이라고 한 것은, 상부적석식의 중소형분들을 신라식목곽묘로 보아 제외하고, 황남대총, 천마총과 같은 지상적석식 대형분만으로 제한한 것인데(최병현 2016), 이들도 원삼국시기 목곽묘가 신라 조기의 ‘신라식목곽묘’를 거쳐 특이하게 발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희준도 신라 적석목곽묘(분)의 발생과정에 대해 이성주와 판단을 같이 하고, 울산 중산리유적의 조사 결과를 종래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된 적석목곽분(묘)들과 좀더 긴밀하게 연결시켰다. 그는 중산리유적 등에서 조사된, 묘광과 목곽 사이를 돌로 충전하였지만 목곽의 상부에는 적석을 가하지 않은 석재충전목곽묘를 사방적석식이라고 하고, 이를 종래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된 상부적석식, 지상적석식과 함께 모두 적석목곽묘(분)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적석목곽묘(분)는 “목곽묘에 뒷채움식의 소량 적석을 가한 일종의 위석목곽묘로부터 사방적석식을 거쳐 상부적석식·지상적석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한 것”(이희준 1996: 306)이라고 하였다. 여기 ‘목곽묘에 뒷채움식의 소량 적석을 가한 일종의 위석목곽묘’란 고분의 입지상 충전토에 우연히 돌이 섞여 들어간 것인지(최병현 2015: 117~120) 아니면 석재충전목곽묘의 충전부에 돌보다 흙이 많은 것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신라 적석목곽묘(분)는 영남지방에서 원삼국 후기부터 축조되어 온 목곽묘로부터 변화 발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희준(1996: 296)은 목곽묘가 발전하여 신라 적석목곽묘(분)가 발생되었다고 보면서, 사방적석 이외의 적석목곽분의 특징적인 각부 구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진화하면서 구조상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최병현은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적석목곽묘(분)가 처음부터 일체적 구조를 이루고 돌연히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목곽 구조가 지상에 놓임으로써 생겨날 수밖에 없는 적석용 木架構 등을 제외하면 그 복잡한 구조의 기본요소는 이미 출현기의 사방적석식 구조에 있다”고 하고 “지하식인 출현기의 사방적석식 구조가 지상화하면서 일단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정점에 달한 구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중산리유적에서 이성주가 ‘목곽적석묘’라 범주화한 것에서 처음 礫床式 묘곽 바닥처리가 나타남으로 역상식 바닥처리는 앞 시기 목곽묘인 목곽위석묘와 (사방적석식)적석목곽묘 사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이종의 곽(관) 구조로 안의 목관(곽)과 바깥의 목곽 사이를 낮은 石壇으로 고정된 황남대총 남분 묘곽의 기본 요소는 초기의 사방적석식 대형분인 경산 임당 G6호분에서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하식인 사방적석식 구조가 지상화해 가는 중에 고구려 남정을 계기로 사로국 지배 계층의 분화가 심화되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5세기 초에 이르러 中小形墳에서는 목곽상부를 적석하는 반지상식의 상부적석식 구조로 변화하고 초대형분에서는 지상식 구조가 나타나는 일종의 分岐 현상이 일어났으며, 지상적석식은 초대형분에 한정되어 “고총고분의 분구 高大化 지향과 맞물려서 묘곽 구조의 지상화 경향이 생김에 따라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지상식의 새로운 구조가 생겨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이회준 1996: 304~305). 그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신라 적석목곽묘(분)는 황남동 109호분 3·4곽의 지하 사방적석식, 황남동 110호분의 일부지상 사방적석식, 황남동 83호분의 반지상 상부적석식· 황남대총 남분의 지상적석식 순으로 진화되었다는 발전도식을 제시하였다. 적석목곽분의 호석도 이성주(1996)와 같이 중산리유적의 사방적석식 단계에 방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았다(이회준 1996: 304~306, 2001).

필자는 울산 중산리유적의 조사를 계기로 이성주와 이회준에 의해 제기된 이러한 새로운 신라 적석목곽분의 계통론을 ‘도랑목곽묘로부터의 발전설’이라 규정하고, 황남동 109호분과 110호분, 황오동 14호분의 보고서들에 근거해 볼 때 이회준이 제시한 적석목곽분의 발전도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북방기원설을 재삼 강조한 바 있다(최병현 1998, 2000). 그런데 당시는 울산 중산리유적의 발굴보고가 있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조기고분의 실체 자체를 알 수 없는 때여서 석재충전목곽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또 신라 조기고분과 전기고분을 연계한 편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쓴 필자의 반론은 좀 성급한 것이어서 울산 중산리유적의 석재충전목곽묘가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등의 오류도 있었고, 이에 따라 학계의 반향도 없었다. 이후 학계에서는 이회준이 자연발생이라고 한 적석목곽분의 구조 각부의 출현과정을 추적하거나(이재홍 2007), 석재충전목곽묘가 적석목곽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김두철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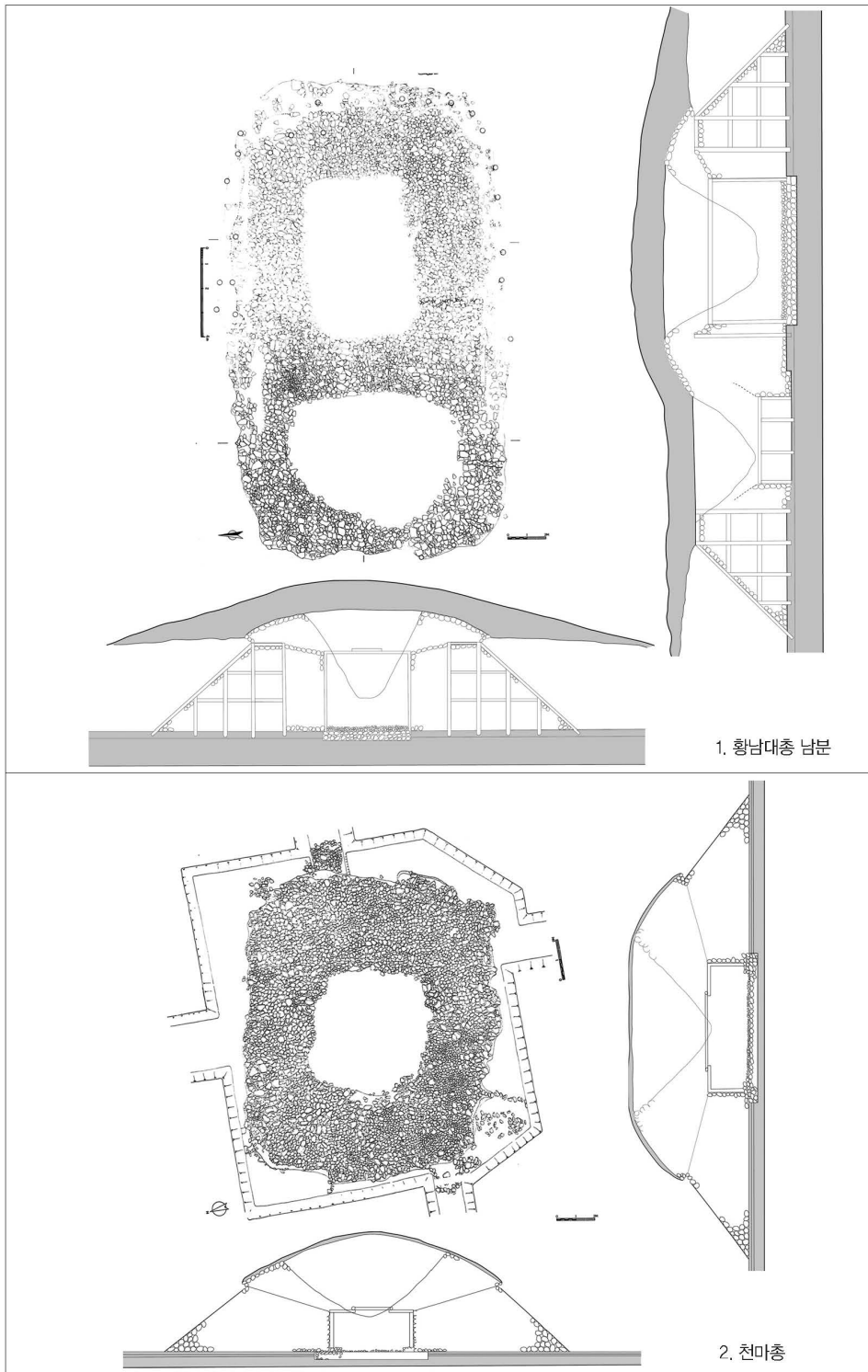
Ⅲ. 영남지방의 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의 선행구조

최근 필자는 이희준이 적석목곽묘의 한 유형으로 본 사방적석식 목곽묘를 석재충전목곽묘라 이름하여 적석목곽분과 구별하고(최병현 2014a), 그것이 신라 초기에 발생하여 경주 월성북고분군과 울산 중산리고분군에서 조영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최병현 2015). 석재충전목곽묘는 신라 초기에 이미 포항지역 등 경주 인근 지역의 일부 고분군으로 이식되었지만, 경주지역에서 그 외의 다른 고분군으로 확산된 것은 오히려 그보다 늦어 신라 전기에 들어온 이후였다. 신라 전기 경주지역의 묘제와 적석목곽분의 범주에 대해서는 전고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월성북고분군에서 석재충전목곽묘는 신라 초기에 이어 전기에도 모두 저봉토묘로 조영되어 고층인 적석목곽분과는 구별되었다. 특히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적석목곽분과 석재충전목곽묘 사이에 입지도 차별화되었고 규모의 차이도 커서, 이들이 별개의 묘제로 정착되면서 묘제 사이에 위계화가 이루어지고 구분되어 조영된 것이 분명하다(최병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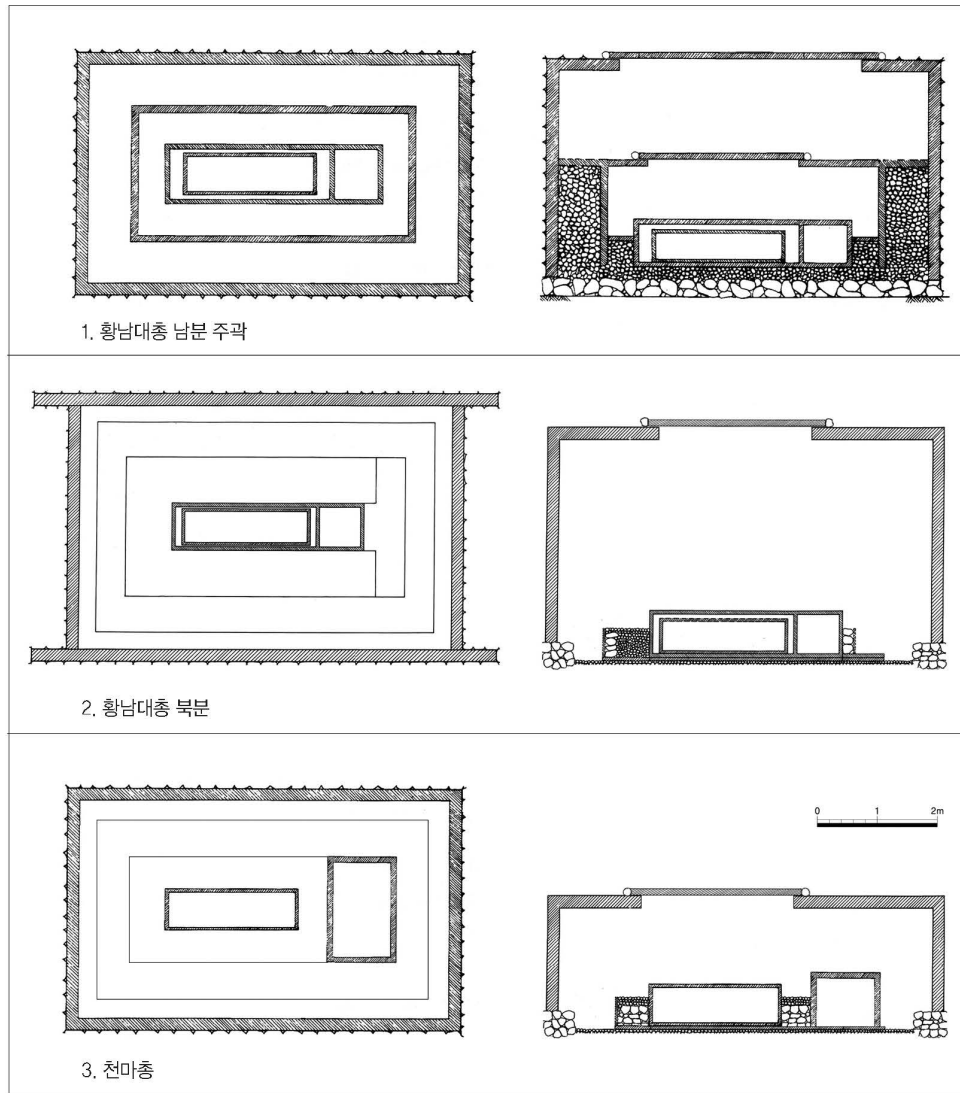
그러므로 석재충전목곽묘를 적석목곽분(묘)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적석목곽분은 매장주체부인 목곽, 목곽 주위의 사방적석에 더해 목곽의 뚜껑 위에 가해진 상부적석과 호석으로 보호된 고층 봉토가 묘광 내 목곽과 사방적석, 그 위의 저봉토로 이루어진 석재충전목곽묘와 차별화 된 것이다. 적석목곽분의 범주에는, 이희준(1996)의 구분을 따르면,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두 유형이 있다. 지상적석식은 목곽과 적석부가 모두 지상에 설치된 것이고(도 1·2), 상부적석식은 목곽과 사방적석이 묘광 안에 설치되고 상부적석은 그 위 지상에 가해진 것이다(도 3).

황남동 109호분 3·4곽은 지하 사방적석식, 황남동 110호분은 일부지상 사방적석식이라 하였고(이희준 1996), 황오동 14호분도 사방적석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김용성·최규중 2007; 김용성 2015), 전고에서 보고서의 재분석을 통해 이들이 모두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임을 재확인 바 있다(최병현 1998). 최근에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두었지만(최병현 2016), 따라서 신라 적석목곽묘(분)가 황남동 109호분 3·4곽의 지하 사방적석식, 황남동 110호분의 일부지상 사방적석식, 황남동 83호분의 반지상 상부적석식·황남대총 남분의 지상적석식 순으로 진화되었다는 발전도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적석목곽분에 대한 필자의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 기원과 관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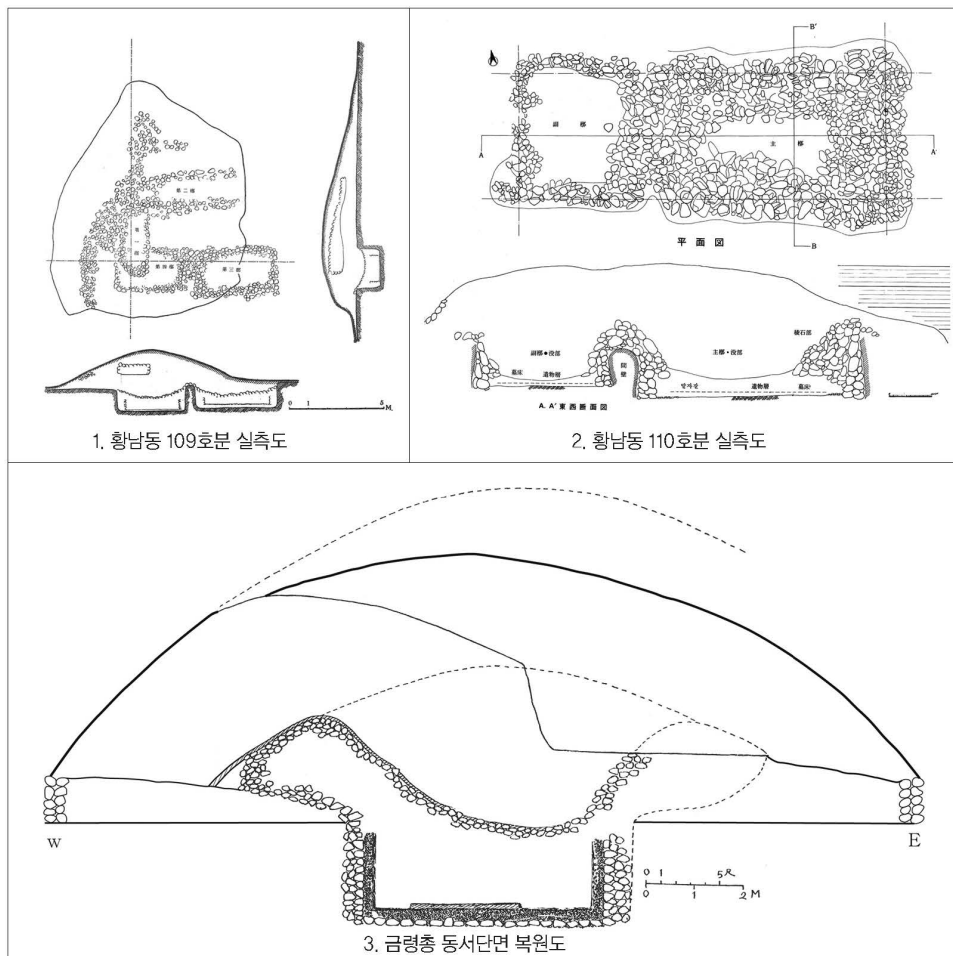
[도 1] 황남대총 남분과 천마총의 적석부 복원도



[도 2] 황남대총 남·북분과 천마총의 목곽부 복원도

학계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온 내용들을 검토해 보겠다. 본고에서 언급되는 고분의 편년은 필자의 최근 신라 초기양식토기의 편년안(최병현 2012b)에 따른 초기고분 편년과 신라 전기양식토기 편년안(최병현 2013, 2014b)에 따른 월성북고분군의 신라 전기고분 편년표(표 1)에 의한다.

먼저 이희준이 사방적석식부터 출현한 역상식 묘곽바닥 처리가 적석목곽묘(분)에서 일반성을 가진다고 보아, 사방적석식을 적석목곽묘(분)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



[도 3]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의 구조

는 이유의 하나라고 한 것이다. 역상식 묘곽 바닥이 중산리유적에서는 석재충전목곽 묘에 앞서 신라 초기 1b기의 점토충전목곽묘의 부곽에서 처음 보이고,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초기 2b기의 월성로 가 8호에서 보이는 것은 전고에서 밝힌 바 있다(최병현 2015: 117). 이희준(1996: 306)은 사방적석식이면서도 묘곽 바닥에 잔자갈을 깔지 않은 월성로 가 13호를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역상식 묘곽 바닥처리가 월성북고분군의 신라 전기고분에서 토광묘와 점토충전목곽묘 이외의 묘제에서 일반화되었으나 대소 고분 모두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또 잔자갈을 깔 범위나 방식에도 고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역상식 묘곽 바닥처리가 목곽묘의 발전과정에서 일찍이 출현하여 신라 전기고분에서 묘제와 고분의 위계에 따

[표 1] 경주 월성북고분군 신라 전기고분의 묘제와 편년

묘제	편년	점토충전목곽묘 (토광묘 포함)	석재충전목곽묘	불명	적석목곽분	수혈식석곽분	횡구식석곽분
1Aa	4C	? : 황오 100-18(토)	? : 인왕 C군 5호				
1Ab	중엽	1A1: 족성 C-10 ? : 인왕(문) 토 1	? : 월성 가-5, 6 ? : 인왕(문) 토 1				
1Ba				2B : 인왕(문) 적 10	1A2 : 황남 109-3·4		
1Bb	4C	? : 인왕(문) 토 16	2B : 미추 5구-21 2C : 인왕(문) 적 9 ? : 월성 가-13, 14				
1Bc	후엽	? : 황오 100-19(토)	2C : 미추 5구-6 ? : 족성 A1 ? : 인왕(문) 토 2		1A1 : 황남 110, 황오 14-1·2		
2a	4C말 5C초		2C : 족성 C9		1A3 : 황남대중 남분		
2b	5C전엽	? : 월성 나-13 족성 C5	2B : 족성 C4 2C : 족성 A2, C1 ? : 월성 나-9	2B : 황남 파괴-4 ? : 인왕(문) 적 3B, 3A	2C : 황남대중 북분	? : 월성 가-11-1	
3a	5C중엽	2C : 인왕(문) 토 14 ? : 황오 100-12	1B4a : 황오 100-14 2C : 월성 나-12 인왕(문) 적 8	1B4b : 황남 파괴-2 2C : 인왕(문) 적 6B, 6A ? : 인왕(합) 12-3 ? : 월성 나-14	1B2a : 황남 109-1·2 2B : 계림 51, 52 2C : 계림 48, 49, 인왕 149	2C : 족성 A16	
3b	5C후엽	2C : 황오 100-17	? : 월성 나-8	2C : 인왕(문) 적 2, 7 인왕(합) 3 월성 가-4 족성 A9 황남 파괴-3 ? : 월성 나-4, 7	1A1 : 황오 41, 16-6·7, 8·10, 족성 B2 1B1 : 황남 82-동 1B2a : 황오 1-남, 황오 16-2·3, 족성 B1, 1B2b : 족성 B3 1B4a : 황오 16-4·5 2C : 인왕(합) 12, 황오 5, 33-동, 16-9, 황오-남, 북, 계림-50, 53, 미추 5구-2, 4, 금관총	2C : 인왕(합) 5, 9 ? : 인왕(합) 14-1	
4a	5C말 6C초	2C : 인왕(합) 19 황오 100-16	1B2a : 월성 가-15(족) 2C : 미추 5구-17(족)	1B4c : 인왕(문) 적 1 2C : 인왕(문) 적 4, 5 족성 A12, 황남 106-3-3, 4 ? : 인왕(합) 12-2, 13 월성 가-1 황남 106-3-8	1B2a : 미추 7구-7 1B4a : 황남 82-서, 1B4c : 황오 16-11·12 2A : 인왕(합) 14, 21, 미추 5구-8, 9구A-1, C구-3 2B : 미추 5구-15 2C : 인왕(합) 10, 15, 황오 16-1, 33-서, 황남 83, 천마총 미추 C구-1, 5구-14, 노동 4, 금관총, 석리중, 노서 138 서봉총, 은령총 ? : 인왕(합) 11, 미추 7구-5	1B2a : 인왕(문) 석 1 2A : 인왕(합) 20 족성 C3 미추 5구-11, 18 2C : 미추 5구-16 미추 C구-10 ? : 인왕(문) 석 3, 4 인왕(문) 8, 12-1 족성 A5, C8 미추 4구-2, 5구-9 미추 C구-9	
4b	6C전엽	? : 월성 가-9	? : 족성 A3	1B2a : 황남 106-3-1 2A : 황남 106-3-5, 6 2C : 미추 5구-5 ? : 인왕(합) 23 월성 다-5 황남 106-3-7	1B4c : 미추 9구A-3 2A : 미추 9구A-2, C구-2 2C : 인왕(합) 6, 황오 4, 계림 14, 미추 4구-3-1, 2 노서 215번지, 호우총, 보문합장분 적석곽 ? : 황남 151 적석곽	1B2a : 인왕(합) 19 1B4c : 황남 106-3-2 1B4d : 월성 나-6 2A : 족성 A4 2B : 족성 A6 2C : 미추 5구-20 ? : 인왕(문) 석 2 월성 가 13-1 가-18, 미추 5구-19	황남 151 석곽

라 일반화되어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사방적석식, 즉 석재충전목곽묘를 적석목곽묘(분)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 근거로 들어 적석목곽묘(분)에서 일반성을 갖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좀 궁색하다.

호석에 대해서도 이성주와 이희준은 신라 초기 2a기인 중산리 IA 74·75호묘에서 처음 평면 방형으로 출현하여 2b기인 IA 26호묘에서 평면 타원형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은 두 고분의 기저부 부석층 가장자리를 마감한 갓돌들일 뿐으로, 적석목곽묘의 1차 봉토 둘레로 쌓아 그것을 보호한 호석과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김두철 2009; 최병현 2016). 현재로서는 신라 전기 1Ba기인 월성북고분군의 황남동 109호분 3·4곽의 호석이 가장 이른 것이며, 중산리유적에서도 같은 기능을 가진 호석은 신라 전기 1Ba기인 IA 51호에서 처음 출현한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최병현 2015: 123~124).

그러나 이들보다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과연 이희준의 주장과 같이 황남대총 남분보다 이른 초기 사방적석식에 석단으로 고정된 2중 목곽이 존재했는가, 그 외 영남 지방의 목곽묘에도 2중의 목곽 구조가 존재했는가 이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그에 앞서 황남대총 남분의 2중 목곽 구조에 대해 좀 더 언급해 두어야겠다. 필자는 황남대총 남북분(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1994)과 천마총(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의 목곽 구조, 그리고 그것들로 본 지상적석식 대형분의 목곽부 구조 변화과정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최병현 1992, 2000, 2016). 이 고분들의 구조에 대한 필자의 이해는 각 고분 보고서의 기술 내용과도 같다.

그런데 김용성(2007)은 황남대총 남북분의 관곽 구조를 보고서와는 다르게 이해하여 남분 주곽을 3중곽과 목관, 북분을 2중곽과 목관으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황남대총 남북분 보고서의 외관은, 그 안에 부장품과 피장자를 안치한 목관이 들어 있으므로 관이 아닌 곽, 즉 내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남대총 남분은 외-중-내 3중곽 안에, 북분은 외-내 2중곽 안에 목관이 안치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김용성의 황남대총 남북분 관곽 구조에 대한 이해는 원삼국 이래 영남지방 목관묘와 목곽묘의 구분과 관련하여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없지는 않다.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원삼국 후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목곽묘와 같이 내부에 피장자의 시신이나 목관과 부장품을 둔 葬具를 槨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지방에서 원삼국시기 이래의 목관묘와 목곽묘가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 경주 조양동유적 발굴부터이며, 황남대총과 천마총이 발굴조사된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그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았다. 또 그 이전에 조사된 적석목곽분에서는 重槨의 존재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세 고분의 발굴도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 남분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천마총에서는 목곽과 목관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처음으로 목곽과는 거리를 두고 목관(내관)과 밀착된 그 외곽 시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외관으로 보아 2중관으로 이해하였고, 다시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목곽(외곽)과 외관 사이에 또 하나의 목곽 시설이 확인되므로 이를 내곽으로 보아 그것을 내-외 2중곽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¹⁾

1) 황남대총 남북분 보고서의 외관을 내곽으로 이해한 것은 毛利光俊彦의 1983년 논문이 처음이다. 다만 이때는 황남대총 남북분의 보고서가 출간되기 이전이므로 약보고를 보고 판단하여, 남분의 약보고에서 四面板壁이라 한 부분을 아직 槨으로 인식하지 않아 남분은 목곽과 내곽 사이에 높은「磬壁」과 낮은「磬壇」이 있는 二重槨式 A種, 북분은 「ㄷ」자형「磬壇」만 있는 二重槨式 B種이라 하였다(毛利光俊彦 1983: 992). 필자는 황남대총 남

그렇게 해서 내외곽과 내외관으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황남대총 남북분의 관곽 구조 가운데 각각의 위치와 연계성이다. 황남대총 남북분의 목곽 중심부에 위치한 2중 구조(내외관)는 石壇으로 둘러싸여 그 속에 내외 모두 나무 바닥을 갖추고 있는 구조물이란 점에서 하나의 세트로 이해되고²⁾, 남분에서 중심부 2중 구조(내외관)의 바깥에 위치한 외부의 2중 구조(내외곽)도 내부가 잔자갈로 채워진 일체 구조라는 점에서 하나의 별도 세트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그 각각의 세트에서 구조물 하나씩이 단계적으로 생략되어 천마총의 홀곽과 홀관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그와 관련이 있든 없든, 또 보고서에서 불인 관곽의 명칭도 반드시 틀린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槨-槨의 원래 의미 자체가 周棺, 즉 外棺이기 때문이다(大漢和辭典 15362, 15003 참조). 그러므로 현재 학계의 의미 부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황남대총 남북분 보고서의 관곽 구조 구분도 그 자체로서는 또 다른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 황남대총 남분의 2중 목곽 구조라 함은 보고서대로 중심부의 2중 구조, 즉 내외관 바깥의 내부가 잔자갈로 채워진 외부의 2중 구조를 의미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1. ‘사방적석식’과 적석목곽분의 선행구조

중산리유적의 발굴로 원삼국 후기의 목곽묘가 자체 발전하여 신라 적석목곽분이 발생하였다는 새로운 계통관이 제기된 이후 영남지방의 목곽묘계 고분에서 2중 목곽 구조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연구 중에는 적석목곽분의 발생과정이나 계통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대개는 영남지방 고분에서 황남대총 남분 주곽의 선행 구조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즉 내외곽 사이가 냇돌로 채워진 2중의 목곽 구조³⁾나 또는 단순한 2중의 목곽 구조를 찾아 황남대총 남분 주곽

분 약보고의 사면 판벽을 1980년 논문부터 내곽으로 써 왔지만(최병현 1980: 37), 본보고서에서 내외곽 뚜껑 개구부에 사용된 축근구가 각각 존재하였음을 밝혀 사면 판벽이 아니라 별도의 뚜껑이 덮인 내곽으로 확정하였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34~35).

2) 내외 모두 나무 바닥이 존재하는 점에서 그 구조는 서북한지방 나무곽무덤과 통하는 점이 있다.

3) 황남대총 남분 주곽의 선행구조와 관련된 논고들에서는 대개 내외곽 사이에 냇돌(川石)로 쌓은 石壇을 상정한다. 그러나 황남대총 남분 주곽의 내외곽 사이는 잔자갈로 채워져 있었으며, 황남대총 남분 보고서(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나 필자의 글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황남대총 남·북분과 천마총에서 石壇이라 한 것은 외관 또는 목관 주위에 돌린 잔자갈 단이고, 石段은 목곽 측벽을 받치기

의 목곽 구조가 지상적석식의 적석목곽분에서 돌연히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여 내려왔음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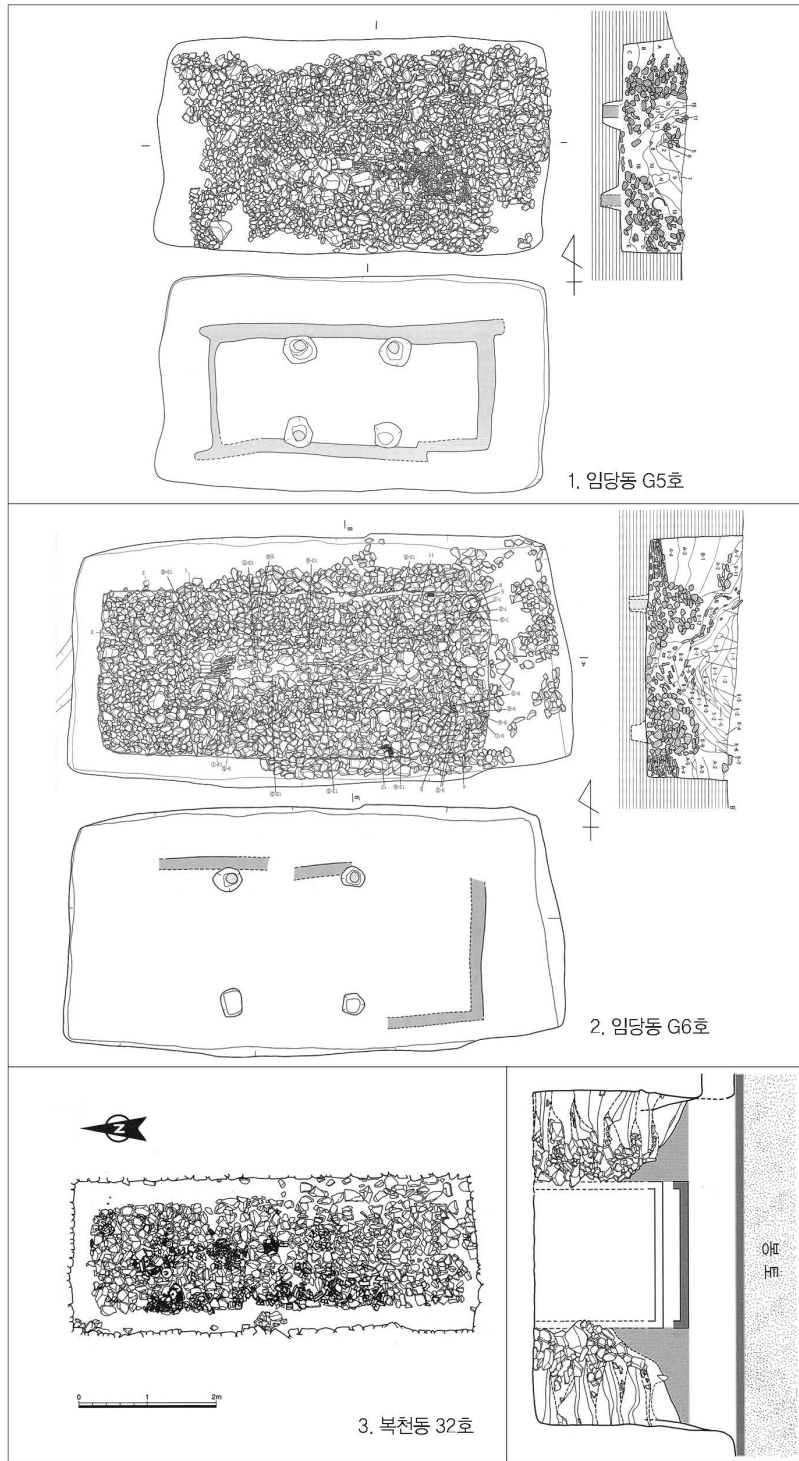
그 대상으로 첫 번째 지목된 것이 경산 임당동 G5·6호분이다(도 4). 이회준은 문맥으로 보아 임당동 G5·6호분을 ‘출현기의 사방적석식’ 또는 ‘초기의 사방적석식 대형분’이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는 이들을 신라전기 1Ab기로 상대편년 한 바 있다(최병현 2014c: 19). 물론 2a기인 황남대총 남분, 그 이전인 1Ba기의 황남동 109호분 3·4곽보다 앞이어서 현재로서는 월성북고분군에서 확인된 적석목곽분들보다 이른 시기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회준(1996: 305)은 1995~6년 발굴된 경산 임당동 G6호분이 “이중의 곽(관) 구조로 안의 목곽(곽)과 바깥의 목곽 사이를 낮은 石壇으로 고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황남대총 남분 관곽 구조의 “그러한 복잡 정교화가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아마도 시기상 황남대총 남분에 앞서는 대형분에서 일부 지상식의 사방적석식 구조에 그러한 정교한 묘곽을 갖춘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와 더불어 안계리고분군 4호분 남곽과 경산 조영동 CII2호분도 역시 2중 구조라고 하였다.

경산 임당동 G5·6호분의 주곽이 내외 2중곽이고, 내곽과 외곽 사이는 냇돌로 석단을 쌓았다는 해석은 보고서로 이어졌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보고서에서는 선축된 6호분 주곽은 묘광 안에 길이 5.68m, 너비 2.42m, 높이 1.20m 정도의 외곽과 길이 3.50m, 너비 64cm, 높이 75cm 정도의 내곽을 설치하고 내곽과 외곽 사이에 냇돌로 석단을 쌓았으며, 후축된 5호분은 묘광 안에 길이 4.14m, 너비 1.90m, 높이 1.30m 정도의 외곽과 길이 3.00m, 너비 65cm, 높이 65cm 정도의 내곽을 설치하고 외곽과 내곽 사이는 냇돌을 채워 석단⁴⁾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G5·6호분 모두 목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하긴 너비 64cm와 65cm의 내곽 안에 목관과 같은 다른 葬具가 들어갔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산 임당동 G5·6호분 보고서의 구조 해석은 이재홍(2007)과 김용성(2007)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김용성은 이를 모델로 호우총과 은령총, 그리고 황남동 110호분 등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분들의 묘곽 구조를 복원하고 있다(김용성 2006, 2014).

위해 목곽 바닥보다 약간 높게 그 가장자리에 냇돌을 2~3단 쌓은 단을 말한다.

4) 보고서 본문에서는 石壇(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45, 109), 고찰에서는 石段, 積石段(193쪽)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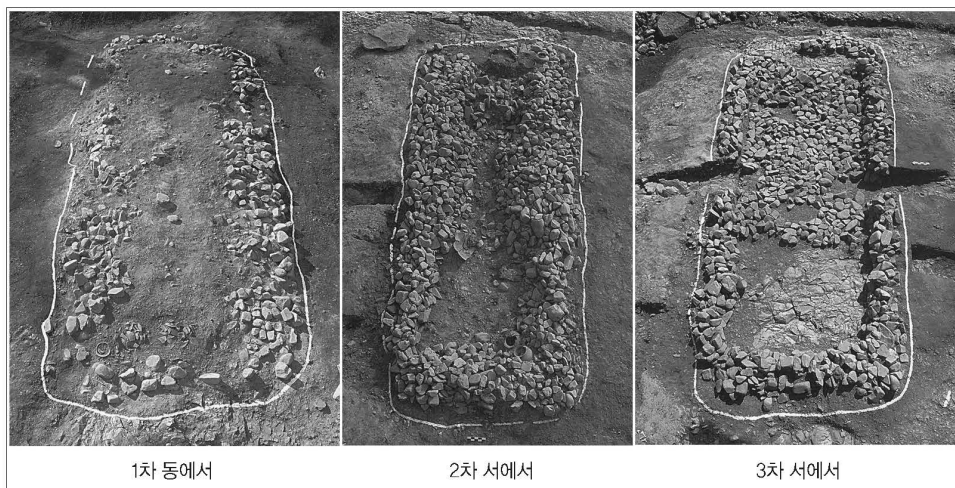
[도 4] 경산 임당 G5·6호와 동래 복천동 32호 묘곽부 실측도(복천동 32호 목곽 복원도 김두철 2007)

그러나 김두철(2007)은 동래 복천동 31·32호분의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경산 임당동 G5·6호분 보고서의 구조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였다. 우선 임당동 G5·6호분은 복천동 31·32호분과 기본적인 구조가 같은 고분으로 묘광과 목곽 사이에 돌을 많이 사용하여 충전한 목곽묘라는 것이다. 즉 본고의 석재충전목곽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 내곽의 범위로 추정된 부분은 목곽 床面 중 목곽 밖에 충전한 돌들이 목곽 내부로 무너져 내려와 덮고 남은 중앙부일 뿐이며, 이 고분의 목곽 床面은 제대로 노출되지도 않았고, 석단과 내곽의 존재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또 보고서에 석단 위에서 출토된 유물이라고 한 것은 모두 목곽 상부에 매납된 유물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김두철의 분석에 대해 필자가 더 이상 보탬 말은 없다. 다만 임당동 G5·6호분은 발굴 당시부터 경주 황남대총 남분의 잔자갈이 채워진 2중 목곽 구조가 선입관으로 작용하여 비판을 부른 구조 해석으로 이어졌다는 점만 첨언해 둔다.

경산 조영동 CII 2호분은 신라 전기 1Bc기로 편년한 바 있고(최병현 2014c: 19), 안계리 4호분도 출토 토기의 형식(문화재연구소 1981)으로 보아 신라 전기 1Bc기 이후로 편년되므로 황남대총 남분보다 앞일 가능성이 있지만 황남동 109호분 3·4곽보다는 늦은 시기이다. 편년상 경주 적석목곽분의 선행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경산 조영동 CII 2호분의 보고서(영남대학교박물관 1999)에서는 그 목곽을 2중곽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묘광 내부로 함몰된 돌들을 제거하지 않아 묘광 床面의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69년에 발굴되어 1981년도에 출간된 안계리 고분군 보고서에서도 4호분 남곽이 2중곽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이 또한 사진과 도면으로 보아 조사 과정에서 묘광 床面 전체가 노출되었는지 의문이다. 사실 당시의 발굴 조사는 2중 목곽의 구조를 밝힐 수 있을 정도의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여건이나 상황도 아니었다. 하여튼 그러나 두 고분 보고서의 묘곽부 노출상태 사진은 목곽 내부의 적석 함몰 상태가 임당동 G5·6호분과 유사하였으며, 목곽 중앙부는 함몰된 돌들로 덮이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고분들은 그 구조가 임당동 G5·6호분과 같았던 신라 전기의 석재충전목곽묘들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최근 보고된 포항 마산리의 소위 ‘적석목곽묘’의 구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도 5). 이 고분은 출토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필자의 신라 초기 2a기로 편년되는데, 보고서(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에 의하면 기반층인 니암 풍화암반에 길이 8.00m, 너비 3.20m, 깊이 50cm의 묘광을 조성하여 그 안에 4.70m×2.00m의 주곽을



[도 5] 포항 마산리 석재충전목곽묘

동쪽, 1.90m×1.95m의 부곽을 서쪽으로 둔 ‘日’자형 동혈주부곽을 설치하고, 묘광과 목곽 사이는 냇돌과 깬돌로 충전하였으며, 목곽 뚜껑 위에 상부적석은 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곽의 목곽 안쪽에는 부곽이 있는 서쪽을 제외하고 너비 50~60cm 내외로 냇돌을 4~5단 정도 쌓은 석단을 두고, 석단 내부에 길이 2.90m, 너비 1.10m 정도의 내곽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도면과 사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고분의 주곽에는 10~20cm 내외의 냇돌을 깔아 조성한 목곽 床面과 묘광 안쪽 충전석 사이에 세워진 목곽의 흔적만 있을 뿐 내곽이 설치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목곽 내 석단이라고 한 부분은 임당동 G5·6호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석이 목곽 내부로 함몰된 것들일 뿐이다. 임당동 G5·6호분은 묘광이 깊은 이혈주부곽으로 묘광과 목곽 사이 반쪽은 흙, 반쪽은 돌로 나누어 채운 데 비해, 이 고분은 묘광이 얇은 동혈주부곽식이고 묘광과 목곽 사이를 돌만으로 채운 차이가 있지만, 이 고분도 흙결의 목곽만 설치된 석재충전목곽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고분의 구조 복원에는 임당동 G5·6호분의 왜곡된 구조 해석이 다시 선입관으로 순환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남대총 남분 주곽 구조의 선행구조가 존재할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인지 임당동 G5·6호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산리 ‘적석목곽묘’에서도 유구가 처음 설치되고 난 후 발굴될 때까지의 유구의 변형 과정은 고려되지 않고, 발굴조사로 노출된 상태 그대로를 원래의 유구 상태로 판단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용성(2015: 124)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 고분을 4세기 전반에 축조된 가장 이른 시기의 대형 적석목곽묘라고 하면서, 목곽의 바깥 지상에 사방적석이 위로 올라가며 좁아지도록 경사로 축조되어 있었던 것처럼 복원한 모식도를 발표하였다. 이 모식도로 보면, 이 고분의 목곽을 포함한 적석부는 단면 사다리꼴의 지상식이 되어 황남대총 남분의 적석부에서 상부적석을 제외한 형태나 사방적석 위로 상부적석이 없었던 황남대총 북분의 적석부 형태에 가까워, 그야말로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의 목곽과 적석부의 선행구조가 이 고분에서 이미 출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과장이고, 그 특유의 상상에 의한 자료의 왜곡 해석이다. 이 고분은 충전석으로 채워진 묘광부가 얇게 남아있었다는 것 뿐 사방적석을 그렇게 지상에 단면 사다리꼴로 쌓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다만 이 고분의 기반층이 풍화암반이었기 때문인지 묘광은 매우 얇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묘광의 깊이가 50cm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가장 깊이 남은 부분일 터이고, 다른 부분은 이보다 더 얇았으며, 일부는 오히려 묘광 바닥부터 성토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고분의 얇은 지하 묘광 위에는 봉토의 하부 성토부 속에 지상묘광이 연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목곽 내부로 함몰된 충전석의 범위가 주곽 쪽은 넓고 부곽 쪽이 좁은 것도 주곽과 부곽의 높이 차이로 양 쪽 지상묘광부의 높이에도 차이가 있어 충전석의 상하 높이가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남지방의 고분에서 지상묘광부의 존재가 처음 주목된 것은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에서였지만(김두철 2009), 그러한 지상묘광부는 적석목곽분에서만이 아니라 원삼국 후기 이래 영남지방의 묘광이 얇은 목곽묘에서부터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산리유적에서도 발굴 당시에는 지상묘광을 인식하지 못하여 유구 모식도에 지하 묘광선만 표시하였지만 얇은 묘광의 점토충전목곽묘나, 지하 묘광 위로도 사방적석을 쌓아 올린 석재충전목곽묘의 모식도(이성주 1996: 61)를 통해 지하묘광 위로 지상묘광이 연장되어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초기 2b기의 석재충전목곽묘인 가 30호에 지상묘광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최병현 2015: 119).

좀 더 자세한 고찰은 후일로 미루어 두었지만, 포항지역은 신라 초기 초부터 경주 사료국에 복속되어 옥성리와 마산리 일대에 경주식의 세장방형 목곽묘나 주부곽식 석재충전목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하였음은 전고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최병현 2015: 143~145). 포항 마산리의 ‘적석목곽묘’라 한 것도 신라 초기에 경주에서 발생

한 석재충전목곽묘가 그곳에 이식된 것일 뿐이며, 동혈주부곽식인 점에서 동시기 경주의 최고 위계 고분이었을 이혈주부곽식보다는 하위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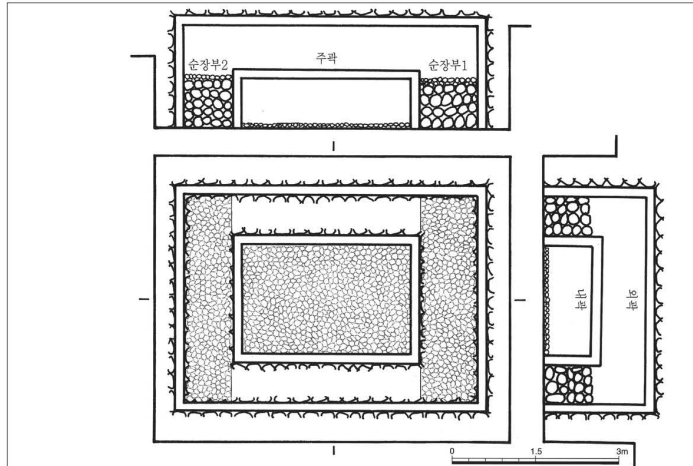
다음은 신라 전기 3기 이후로 편년됨으로 황남대총 남분의 2중 목곽 구조 발생과는 관계가 없지만, 역시 목곽부를 2중 구조로 복원한 영덕 괴시리 16호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어야겠다(도 6). 김용성(2006)은 경주 호우총과 은령총의 목곽을 2중 구조로 복원하는 근거로 이 고분을 들기도 했다.⁵⁾

1986년도에 발굴조사된 영덕 괴시리 16호분은 발굴보고서에서 “조사 결과 이 무덤의 내부 구조는 경주시가지에 집중분포되어 있는 積石木槨墳과 동일함이 밝혀졌다”(국립경주박물관 1999:1)고 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적석목곽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목곽 뚜껑 위에 상부적석이 가해진 증거를 찾기 어렵다. 발굴보고서의 다른 기록에도 “목곽상부에는 적석되지 않았거나 소량의 적석만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것(국립경주박물관 1999: 14)으로 보아 이 고분은 상부적석이 가해진 적석목곽분이 아니라 목곽 사방에만 돌이 채워진 석재충전목곽묘였던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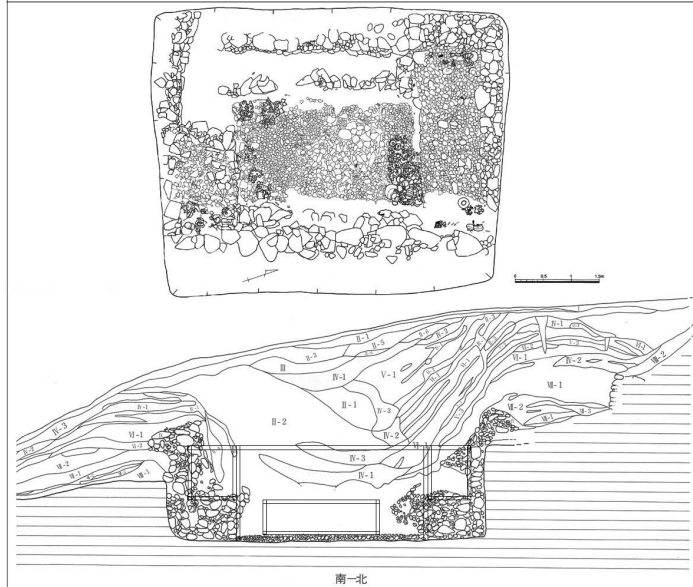
그런데 이 고분의 묘곽부 구조 가운데에는 경주지역의 고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장축을 남북으로 둔 묘곽의 가운데에 잔자갈을 깔아 주 피장자와 부장품을 안치한 목곽의 床面을 조성한 것은 경주지역 고분들과 같은 점이다. 그러나 築石式에 가깝게 돌을 쌓아 올린 묘곽과 목곽 사이의 충전부 중 중심부 목곽 바닥보다 1m 높은 위치의 남북 단변 쪽 충전부에 잔자갈을 깔아 각각 순장부 床面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경주지역 고분에서는 아직 사례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영덕 괴시리 16호분의 묘곽부 구조에 대해 발굴보고서에서는 묘곽과 순장부 상면 사이에 외곽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심부 목곽을 내곽으로 한 2중 목곽 구조로 복원하고, 순장부에는 ‘독립된 목곽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국립경주박물관 1999: 20)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발굴보고서의 묘곽부 구조 복원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중심부의 목곽 외에 외곽이 설치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묘곽의 바닥에서 실제 외곽의 목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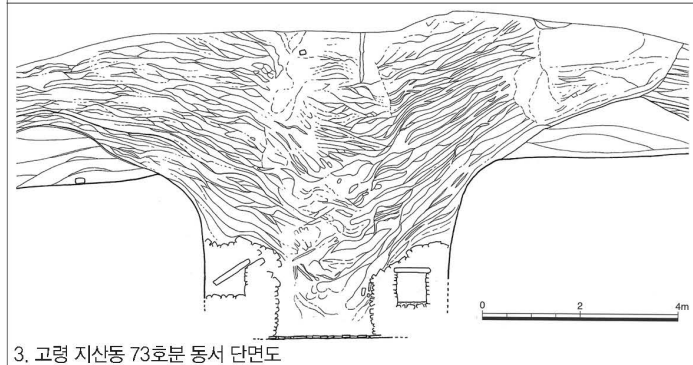
5) 김용성은 또 호우총과 은령총을 2중곽으로 복원하는 근거의 하나로 노동동 4호분을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동 4호분은 신라 적석목곽분으로서는 최초의 학술적 발굴조사인 1924년 5월의 금령총 발굴 직후, 같은 해 8월에 수습조사된 것으로, 200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과정에 메모된 내용과 유물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 것이다(국립중앙박물관 2000). 그 보고서에 2중 목곽의 복원도가 작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발굴자들이 2중곽의 구조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시에 추정복원한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고분의 2중곽 복원도 당시의 선입관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1. 영덕 과시리 16호분 묘곽부 복원도(국립경주박물관 1999)



2. 영덕 과시리 16호분 묘곽부 실측도와 남북단면 복원도



3. 고령 지산동 73호분 동서 단면도

[도 6] 영덕 과시리 16호분과 고령 지산동 73호분의 묘곽부 구조

흔적이 확인된 바도 없지만, 보고서 사진의 충전석 사이에서도 외곽의 목곽 흔적이나 목곽이 설치되었을 틈을 찾기 어렵다. 다음으로 순장부에도 별도의 소형 목곽이 설치되었거나 아니면 목곽과 같은 葬具가 놓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의 고분 단면도(국립경주박물관 1999: 13)에는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석이 전체적으로 묘광 어깨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가운데, 목곽 북쪽의 충전부에는 순장부 시상이 마련된 단위로 공간을 두고 묘광 어깨부에서 함몰된 충전석이 덮고 있는 부분이 묘사되어 있고, 보고서의 사진들에서도 함몰된 충전석들이 순장부 상면 위를 덮고 있는 장면(국립경주박물관 1999: 176~179)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한편 고령 지산동 73호분(대동문화재연구원 2012)의 묘곽부는 순장곽이 석곽인 점과 그 배치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영덕 괴시리 16호분의 묘곽부 구조 해석에도 큰 참고가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영덕 괴시리 16호분 묘곽부의 2중 목곽 구조도 근거가 없으며 선입관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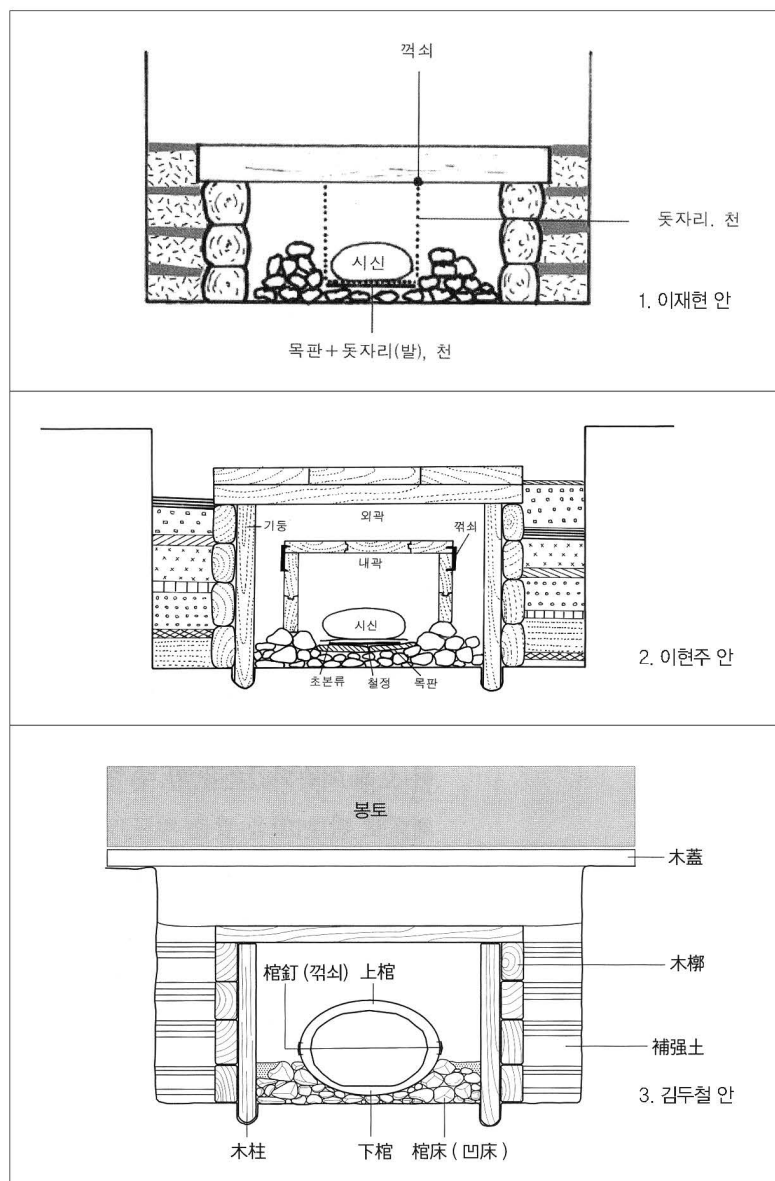
2. 동래 복천동유적의 목곽묘 구조

1) 목곽묘의 구조에 대한 제견해(도 7)

동래 복천동유적의 목곽묘 구조에 대해서는 신라 적석목곽분의 출현과정과 관련시키는 관련시키지 않은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희준(2016)이 종합·정리한 바와 같이 그동안 동래 복천동유적의 목곽묘 구조는 출토된 꺾쇠들의 사용 위치 및 목곽 바닥에 설치된 棺床의 구조와 함께 논의되어 왔다.

일찍이 이현주는 복천동유적 4세기대 목곽묘에서 꺾쇠들의 출토위치를 근거로 내곽의 존재를 상정한 바 있다(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45~46). 이에 대해 이재현(2004)이 복천동 목곽묘의 上面이 불규칙한 凹狀의 시상에 내곽 설치는 불합리하다고 비판하였지만, 그는 꺾쇠의 출토 위치 및 꺾쇠에 붙어있는 나무결의 방향을 들어 재차 ‘凹’자상 시상석의 돌출부에 내곽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현주 2006). 그는 복천동 22호 수혈식석곽의 내부에 존재한 목곽을 통해 그와 같은 구조를 상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복천동 22호 내부에 존재한, 꺾쇠를 사용한 목곽은 (외곽인) 석곽 안에 존재한 내곽이므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4세기대 목곽묘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석곽에 대신하는 나무로 된 네 측벽”, 즉 꺾쇠 없이 설치된 목곽(외곽)이 있고 그 안에 꺾쇠를 사용한 또 하나의 목곽, 즉 내곽이 존재했다는 것이

다(이현주 2010). 그러면서 영남지방의 목곽묘에는 2세기 후엽~3세기 전엽부터 꺾쇠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목판으로만 결구한 내곽이 존재하다가 4세기 초부터는 꺾쇠나 槨釘이 사용된 내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4세기 전엽 북천동 38호부터 ‘凹’자형 시상석이 출현하였다고 보았다(이현주 2006). 이와 같은 이현주의 주장을 이희준은 꺾쇠=‘내곽용설’이라고 명명하였다.



[도 7] 동래 북천동유적 목곽묘 복원도

김두철(2010)은 이에 대해 그의 ‘전기가야’유적이라는 동래 복천동, 김해 대성동·양동리·예안리 목곽묘의 棺床을 분류하여 그 구조에 따른 목곽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이현주가 상정한 내곽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는 목곽의 내부에 돌을 깔아 만든 시설을 棺床이라 정의하고, ‘전기가야’의 묘제에는 凹床과 平床, 無棺床이 있는데 묘상에는 바닥이 둥근 통나무(刳拔式)관, 평상에는 바닥이 편평한 箱形棺이 놓였다고 보았다.⁶⁾ 특히 묘상의 구조를 중점적으로 복원하면서 묘상의 양쪽 돌출부의 높이는 고르지 않아 여기에 내곽을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묘상의 돌출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출토되는 꺾쇠들은 통나무관의 상관과 하관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대성동 목곽묘의 평상에서 출토되는 꺾쇠나 관정도 상형관에 사용된 것으로, ‘전기가야’ 묘제의 묘상이든 평상이든 꺾쇠와 관정은 목관에 사용된 것일 뿐 이를 통해 또 다시 목곽, 즉 내곽을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최종규(2012)는 복천동 38호 등의 凹床에 놓인 목관이 蓋板의 유무가 불분명한 頭廣足狹의 船棺일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김두철(2013)은 凹床의 頭廣足狹 구조를 반대하면서 꺾쇠로 고정된 통나무 목관의 사용을 재차 주장하였다. 이희준은 이를 꺾쇠=‘목관용설’이라고 명명하였다.

최종규(2012)는 김두철의 凹床 구조 복원안을 보완하면서 꺾쇠가 사용된 위치에 대해서는 위의 두 사람과는 다른 안을 냈다. 즉 그는 복천동 목곽묘의 凹床이 돌만으로 축조되어 돌 사이에 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全面에 점토를 도포하여 완성한 粘土床이었을 것이며, 그 자신의 목곽묘 내부 공간분할안으로 보아 복천동 38·57·60·95호의 예는 棺 부위가 頭廣足狹이어서 창녕 송현동 7호묘의 예처럼 船棺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船棺에 蓋板의 유무는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복천동 95호와 57호 목곽묘의 단벽 내측에서 출토된 꺾쇠들은 목관의 단벽을 連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며, 38호, 60호 목곽묘와 22호, 11호 수혈식석곽묘에서 장변을 따라 출토된 꺾쇠들은 목곽의 개판을 연결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목곽묘에 내곽의 존재에 대해서는 김두철과 같이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이희준은 이를 꺾쇠=‘개판연결용설’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棺床의 구조와 꺾쇠의 출토위치에 초점을 두고 복천동 목곽묘를 중

6) 그는 묘상을 복천동형, 평상을 대성동형이라 명명하고, 이를 통해 대성동유적과 복천동유적의 조영집단은 묘제의 전통을 달리하는 이질집단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하면서도 양 세력이 모두 ‘전기가야’의 중추세력이었다고 한다(김두철 2010: 126).

심으로 그 내부구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2중곽 구조, 곧 내곽의 존재가 긍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하였는데, 최근 이희준(2016)은 위의 세 가지 안을 세밀하게 대비하며 검토해 본 결과로써 다시 동래 복천동과 경주의 목곽묘에 내곽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凹狀의 礫石床에 목관이 놓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내곽용설의 약점이었는데, 목관용설은 목곽 내 목관의 존재를 부각시켰지만 목관이 반드시 꺾쇠를 사용한 구조임을 논증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개관연결용설’은 凹床이 내부는 돌이나 표면은 粘土床이었을 것으로 보아 ‘목관용설’이 ‘내곽용설’에 대해 지적한 돌로 쌓은 凹床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주었지만, 꺾쇠 출토의 정형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은 해소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관연결용설의 출발점이 된 복천동 11호에서 꺾쇠들의 출토위치는 석곽의 벽에 인접해 있어 꺾쇠들의 사용 위치가 석곽 내 목곽 벽 위인 것을 알 수 있지만, 목곽묘에서는 꺾쇠가 목곽 벽의 훨씬 안쪽에서 출토되므로 그것을 그대로 ‘개관연결용설’에 대입하면 꺾쇠는 목곽 개관의 가운데 가까운 위치에 사용한 것이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꺾쇠가 출토되는 그 지점에 목곽의 벽을 둔 내곽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현주와 같이 복천동유적에서는 목곽의 한쪽에 치우쳐 꺾쇠들이 출토한 복천동 84호, 그리고 38호 등 요상에서 꺾쇠가 출토된 목곽묘들에 내곽이 설치되었다고 보았으며, 경주지역에서는 구어리 1호와 2호에 내곽이 설치되었는데 철기로 凹床을 구축한 구어리 1호분에서는 凹床에 놓인 목관의 좀 더 바깥에 내곽이 설치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이희준은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앞의 세 가지 안을 통합한 ‘신내곽용설’이라고 하면서 목곽묘에서 2중곽 구조의 존재 확인에 강한 집착을 보였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것으로 복천동유적 목곽묘에서 2중곽 구조나 내곽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선 그는 복천동유적 목곽묘에서 꺾쇠들의 출토 위치가 복천동 11호 등 수혈식석곽묘 안에 설치된 목곽에 사용된 꺾쇠들의 출토 위치보다 훨씬 안쪽이라는 것을 내곽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의 그러한 판단에는 ‘내곽용설’에서와 마찬가지로 목곽의 부식과 함몰에 따른 유구의 변형과정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결과로써 꼭 ‘신내곽용설’에 적합하지만도 않은 정황을 유리하게 설명한 측면도 있다. 예컨대 복천동 목곽묘의 꺾쇠 출토 정황이 고도의 정형성을 띠기는커녕 변이가 더 심한 편인 점도 꺾쇠를 ‘개관연결용설’보다는 ‘신내곽용설’로 내곽의 개관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처럼 설명했지만(이

회준 2016: 56~57), 필자가 보기에는 그것이 내곽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가 꺾쇠가 출토된 부곽에서는 내곽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꺾쇠나 槨釘이 출토된 주곽에만 내곽을 상정하는 점도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이회준의 주장에도 이와 같이 그 자신이 경계했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회준 2016: 53)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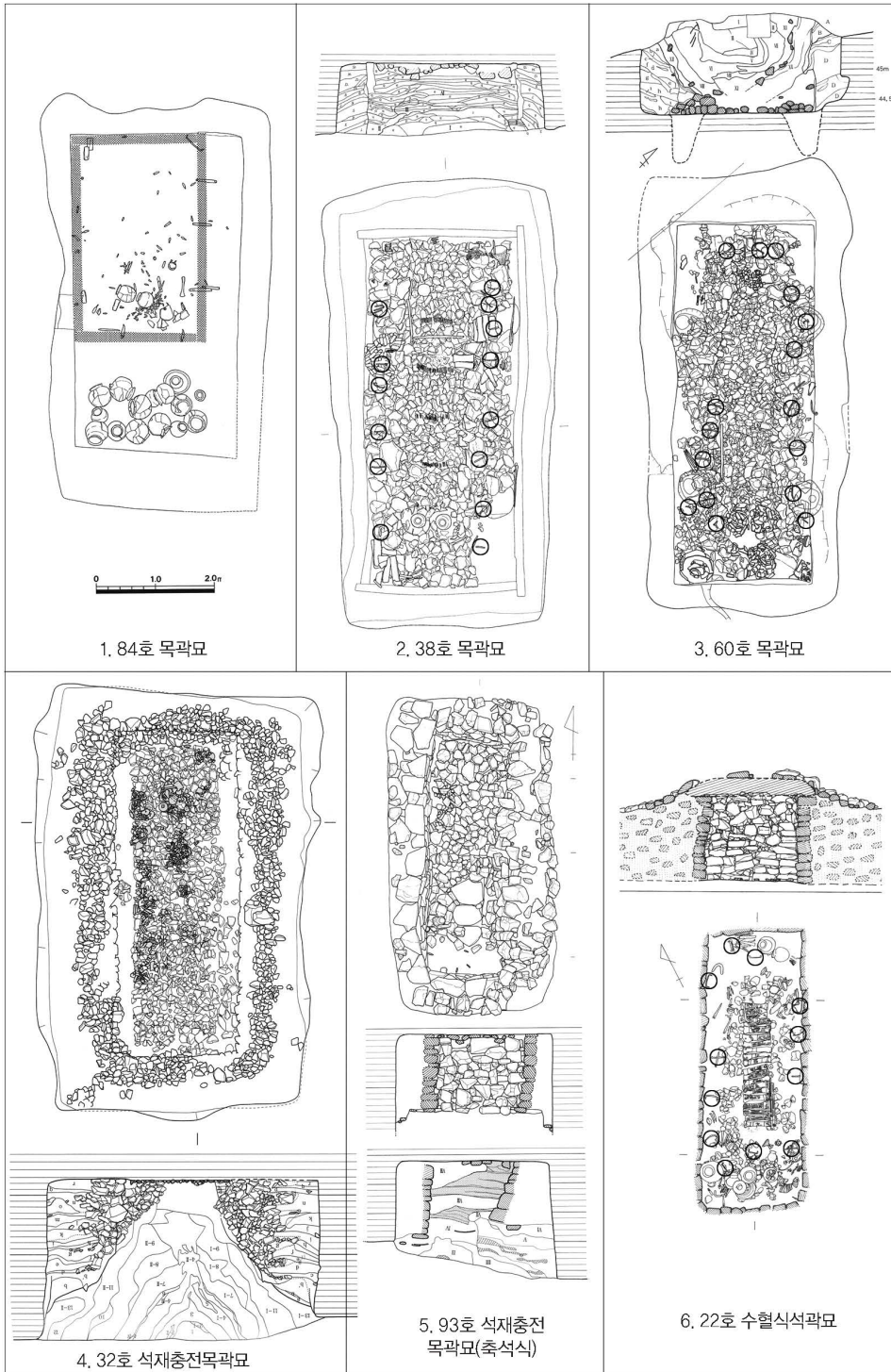
그러나 복천동 목곽묘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묘광 내부에 남아있는 전체 유구가 검토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부차적인 꺾쇠로서 유구 전체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사실 꺾쇠는 목관에든, 목곽에든, 그 외 목곽 내 여러 시설이나 부속물에도 사용될 수 있고, 한 고분 내에서도 여러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도 목관용설이나 내곽용설, 신내곽용설에서는 모두 그 중 한 곳에만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 동래 복천동유적의 묘제변화와 목곽묘의 구조(도 8)

필자는 과거에 동래 복천동유적의 조사결과를 통해 신라 전기 영남지방의 수혈식 석곽분이 신라 초기 목곽묘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최병현 1992). 당시는 복천동유적 발굴고분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가 출간되기 이전이어서 세부적인 고찰은 불가능하였지만⁷⁾, 지금도 그 주장의 큰 흐름에는 생각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많은 고분의 보고서가 출간된 지금은 보완해 두어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차제에 동래 복천동유적에서 신라 초기 목곽묘로부터 신라 전기 수혈식석곽묘로의 묘제전환 과정을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아울러 위에서 논의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기로 하겠다.

우선 본고의 [도 8]을 중심으로 필자의 신라토기 편년안에 대비한 복천동유적 주요 고분의 상대순서를 제시해 두는 것이 논리의 전개에 편리하겠다. [도 8]의 고분 중 복천동 38호는 신라 초기 2a기, 60호는 2b기(최병현 2012b: 139), 32호와 22호는 신라 전기 1Ba기로 편년되지만 선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최병현 2013). 84호는 아직 보고서 미간인데, 이현주(2006: 565)에 의하면 복천동유적에서 최초로 꺾쇠가 출토되는 목곽묘로 38호보다 이른 시기라고 하며, 공개된 토기 사진 중에는 김해 대성동 29호 양이부호와 같은 형식도 있지만 그보다 동체가 상하로 길고 목도 길어진

7) 일부 필자의 실견 기억에 의존한 서술 중에는 오류가 있기도 하였다. 예컨대 점토층전목곽묘인 복천동 35·36호분(부산대학교박물관 2012)을 석재층전목곽묘라 한 것이다(최병현 1992: 104).



[도 8] 동래 복천동유적의 묘제 변천(○은 꺾쇠 출토위치)

형식이 공반되어(북천박물관 2009: 37) 필자의 신라 초기 1b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93호는 출토 토기들의 형식으로 보아 신라 전기 1Ba기로 편년되지만 22호보다 이른 형식의 외절구연고배가 공반된 점, 그리고 묘곽 구조의 변화 순서로 보아서는 32호와 22호의 사이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논지 전개에 필요한 복천동 11호는 신라 전기 2a기이다(최병현 2014b).

이상을 정리하면 84호:초기 1b기 → 38호:초기 2a기 → 60호:초기 2b기 → 32호:전기 1Ba기 → 93호:전기 1Ba기 → 22호:전기 1Ba기 → 11호:전기 2a기의 순서가 된다. 그런데 이 중 84호, 38호, 60호는 묘곽과 목곽 사이를 흙으로 채운 순수 목곽묘, 즉 점토충전목곽묘이고, 32호는 석재충전목곽묘이다. 93호는 실질적으로 석곽 벽과 같은 석벽 안에 목곽이 설치되었지만 아직 石蓋는 덮이지 않고 목개가 석벽 바깥쪽까지 넓게 덮인 것이라 한다. 보고서에서는 목개석곽묘로 보았지만(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 1997), 묘곽과 목곽 사이에 돌을 쌓는 방식이 32호의 충전식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되어 축석식이 되었으나 석벽 위에 아직 석개가 덮이지는 않았으므로⁸⁾ 필자는 93호도 수혈식석곽묘보다는 석재충전목곽묘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본다(최병현 2016). 22호와 11호는 내부에 아직 목곽이 남아있지만 석개가 덮인 수혈식석곽묘이다.

상대 시기와 축조 순서에 따른 이와 같은 고분의 구조 차이는 복천동유적에서 신라 초기 (점토충전)목곽묘가 충전식과 축석식의 석재충전목곽묘를 거쳐 신라 전기 수혈식석곽묘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복천동 22호와 11호의 수혈식석곽 내부에 존재한 목곽은 수혈식석곽묘가 목곽묘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그 석곽 벽은 석재충전목곽묘의 묘곽과 목곽 사이의 충전석이 점차 치밀하게 축석되어 성립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천동 22호와 11호에서 석곽과 목곽의 벽은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없이 밀착·설치되어 겹곽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수혈식석곽묘의 성립과정을 필자와 같이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천동 22호와 11호의 석곽과 목곽은 겹곽 상태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8) 보고서에서는 석벽 위 바깥으로 목개의 끝을 마감하는 돌의 열이 있어 거기에 목개가 덮였을 것으로 보았는데(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 1997), 목곽 벽 위에는 이와 별도의 목개가 덮였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부산 화명동유적 등 지금까지 판석 뚜껑은 덮이지 않았지만 묘곽의 벽은 돌로 쌓았다고 보아 목개석곽묘로 판단되어온 고분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들 중 신라 초기~전기의 이른 시기 고분 상당수는 목곽 둘레에 축석식으로 돌을 쌓은 석재충전목곽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내곽용설’에서는 이전 단계 목곽묘들에서 충전토와 맞닿아 있는 목곽을 석곽 대신으로 보아 그것을 목곽묘에 내곽이 존재하였다는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으면서도(이현주 2010: 150), ‘내곽용설’이나 ‘신내곽용설’에서 내곽의 위치는 그보다 안쪽의 꺾쇠들이 출토된 곳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목곽묘에서 충전토와 맞닿아 있는 목곽, 즉 외곽과 꺾쇠들이 출토된 위치의 내곽은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重槨 상태였다는 것인데, 수혈식석곽묘에서는 그러한 重槨의 내곽이 외곽 쪽으로 밀려나 석곽에 밀착된 겹곽의 내곽이 되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복천동 고분의 변화에서 그러한 과정은 찾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복천동유적에서 이러한 묘제의 전환과정은 비단 복천동유적의 현상만이 아니라 신라 전기 영남지방 수혈식석곽묘의 성립과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라 전기 영남지방의 수혈식석곽묘는 이와 같이 목곽묘로부터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석곽 내 목곽이 오래까지 지속되기도 하였지만, 점차 석곽이 견고하게 축조됨에 따라 그 안의 목곽은 실용성이 없게 되어 생략되고 결국 석곽만 남게 된 것이다. 복천동 11호 석곽의 측벽 양쪽에 꽃혀 있는 철모의 위치를 근거로 22호의 목곽 높이가 11호의 목곽 높이와 같이 석곽의 높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부산대학교 박물관 1983, 1990), 석곽묘에서 그러한 목곽의 탈락과정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단정해야 할 이유도 없다. 11호 석곽 내 목곽의 높이가 그와 같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22호의 목곽은 축석식인 93호와 같은 높이였을 것이나, 22호와 11호의 시차로 보아 11호에 와서 목곽은 실용성이 떨어져 퇴화 과정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38호를 기점으로 묘곽 내 피장자의 안치 위치가 달라지면서 묘곽의 평면형태도 변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현주에 의하면 38호보다 이르다는 84호의 크기 $2.80\text{m} \times 5.90\text{m}$ 의 목곽 한 쪽 모서리에 치우쳐 $2.00\text{m} \times 3.20\text{m}$ 의 내부 구조물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복천동유적에서 최초로 꺾쇠를 사용하여 축조한 내곽이며, 이로부터 38호 등 복천동유적에서 꺾쇠를 사용한 내곽의 축조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꺾쇠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목곽묘에서 내곽은 2~3세기대 목곽묘에서부터 존재하여 복천동 84호의 내곽 양상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이현주 2010: 151~154).

꺾쇠들의 출토위치로 보아 복천동 84호의 목곽 내부에 또 다른 시설이 설치되었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내곽이었는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과거에 원삼국 후기 영남지방에 등장하는 대형 목곽묘는 그 계통이 서북한지방의 낙랑

귀틀무덤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본 바 있으며(최병현 1992: 70~71), 낙랑 귀틀무덤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칸막이가 설치되었음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高久健二 1995). 복천동 84호는 영남지방 목곽묘에서 목곽 내의 그러한 시설이 신라 초기의 이른 시기까지 존재했음을 알려주지만, 4벽 중 2벽을 목곽과 공유한 시설이 반드시 목곽과는 별도의 뚜껑까지 덮인 내곽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보다는 84호에서 38호로 오면서 피장자의 안치 위치가 목곽의 중심 축선으로 오고, 묘곽의 평면 형태가 좀 더 세장해져 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곧 목곽의 내부 공간과 그 안의 시설이 더욱 단순해져 간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 38호부터 목곽 바닥에 돌을 쌓아 설치한 단면 ‘凹’자형 棺床이 등장하는데, 이 凹床에는 바닥이 둥근 목관⁹⁾이 놓였을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론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최종규는 이 凹床이 돌만으로 축조되어 돌 사이에 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전체에 점토를 도포하여 완성한 粘土床이었을 것으로 보았고, 이희준은 이를 ‘목관용설’이 ‘내곽용설’에 대해 지직한 돌로 쌓은 凹床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주었다고 평가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목곽 바닥 거의 전체에 돌을 쌓아 설치한 시상의 돌 사이 틈을 모두 점토로 매우고, 특히 목관이 놓일 면이 매끈하도록 점토를 도포하였다면 그 점토의 양은 상당하였을 것이므로 묘광 내부에 물이 차 죽상태가 된 점토는 바닥에 침전되어, 발굴 당시 묘광 바닥에는 상당한 두께의 점토 침전층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발굴 보고에서 이를 명시한 서술이나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凹床이 설치된 목곽묘에서 내곽의 존재 근거로 들고 있는 꺾쇠들의 출토상태를 살펴볼 차례이다. ‘내곽용설’에서는 천안 화성리 백제묘 B지구 1호 목곽묘에서 “목관은 꺾쇠를 머금은 채 부식되어 점토상으로 나타난 예”를 근거로 들고, “이로써 복천동목곽묘를 유추해 볼 때 꺾쇠의 위치변동은 그렇게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복천동 73호, 60호, 95호 목곽묘의 凹床에 떨어져 있는 꺾쇠들의 출토 위치에 바로 내곽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그 추정도를 제시하였다(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45~47). 그러다 보니 이 목곽묘들에서 내곽의 위치는 凹床의 중심 축선과는 관계없이 다 다르고, 내곽의 너비도 다르게 표시되었다. ‘신내곽용설’

9) 김두철(2010)은 통나무관이 놓였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최종규(2012)는 관 부위가 頭廣足狹으로 공간분할된다고 보아 船棺이 사용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최종규의 凹床 부위 공간분할안은 좀 임의적인 것으로 보여 동의하지 않는다.

에서는 북천동 목곽묘에서 꺾쇠들의 출토위치가 북천동 11호 등 석곽 안의 목곽에 사용된 꺾쇠들의 출토위치보다 훨씬 안쪽이라는 것을 내곽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이희준 2016).

그러나 이들의 판단에서는 고분 축조 후 유구의 변형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무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화성리 B-1호 목곽묘의 경우 목관이 꺾쇠를 머금은 채 부식되어 점토상으로 나타난 것은 목곽이 부식되어 일시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목곽의 내부에 침전물이 채워지면서 내부의 목관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성리 B-1호 목곽묘 안의 목관과 북천동 목곽묘의 목관은 규모 차이로도 곧바로 대비할 바가 아니지만, 특히 꺾쇠가 낙하할 목관과 목곽의 높이 차이는 비할 바가 아니다.

북천동 22호와 11호의 석곽 안 목곽에 사용된 꺾쇠들이 석곽 벽에 바로 접하여 출토된 것은 봉토의 토압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석곽이 막아줌으로 그 안의 목곽은 외부의 압력을 직접 받지 않아 뚜껑 등에 사용된 꺾쇠들이 목곽의 부식에 따라 큰 위치 변동 없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위치로 낙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목곽묘에서는 봉토의 토압과 같은 외부의 압력을 목곽이 직접 받을 수밖에 없으며, 목곽 측벽의 하부는 잘 다져진 충전토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바로 뚜껑을 받치고 있는 목곽 측벽의 상부는 비어있는 목곽 내부 방향으로 향하는 경사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목곽의 부식으로 목곽 측벽 위쪽의 개관에 사용된 꺾쇠들은 목곽 측벽선보다 안쪽으로 함몰 낙하되거나, 압력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쏠려 낙하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압력이 목곽 중심부 쪽이나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였다면 꺾쇠들의 출토 위치에 일관성이 있겠지만, 목곽의 부식과 함몰 과정의 불규칙성에 따라서는 꺾쇠들이 흩어져 출토되어 그 위치가 일관성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목곽 내부가 침전물로 채워져 수평 층위를 이루고 목곽 측벽 일부의 부식 흔적이 수직으로 남은 38호와 목곽의 함몰로 묘광 내부가 'U'자형 층위를 이룬 60호 목곽묘의 凹床 위에 떨어진 꺾쇠들의 출토위치에서도 그러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내곽용설’과 ‘신내곽용설’에서는 이와 같은 유구의 변형과정과 그에 따른 꺾쇠들의 출토위치의 변수가 무시되고 凹床 위에 낙하된 꺾쇠들로 내곽의 존재와 내곽의 위치를 상정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凹床이 설치된 목곽묘에서는 공간적으로도 내곽이 설치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축석식 석재충전목곽묘인 북천동 93호와 수혈식석곽묘인 북천동 22호, 11호의 내부에서 목곽의 설치가 인지될 수 있는 것

은 비단 꺾쇠의 출토만이 아니라 석벽이나 석곽 벽을 따라 나무로 측벽을 세웠던 흔적이나 나무 측벽 두께만큼의 공간이 묘곽 바닥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凹床이 설치된 목곽묘에서는 충전토에 붙여 세운 목곽의 흔적이나 그 공간 외에 내곽의 흔적이나 내곽 두께만큼의 공간이 묘곽 바닥에서 확인된 예가 없다. 설사 凹床이 점토로 도포된 粘土床이었다 해도 돌출부에서 그 바깥은 점토로 채워진 수평면이 아니고는 내곽과 같은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점토를 도포했다 하여도 돌 단면 그대로의 곡면이나 경사면 상태였다면 내곽과 같은 구조물을 세우기에는 불안한 면을 이루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복천동 54호분 주부곽에서 꺾쇠가 아니라 쇠못이 출토된 것으로도 내곽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지만(이희준 2016: 57), 그것도 굳이 내곽을 상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목곽 측벽의 바로 위에서 개관과 측벽을 고정시키기 위해 박은 곽정이 함몰과정의 경사 압력으로 측벽선보다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복천동 22호와 11호 수혈식석곽묘에서 목곽은 외곽인 석곽과 공간을 두고 설치된 중곽식의 내곽이 아니며, 오히려 목곽 바깥의 충전석에서 발전한 석곽이 목곽과 겹곽 상태로 밀착 설치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복천동 유적의 목곽묘에 중곽식의 내곽이 존재하였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복천동유적 목곽묘에서 꺾쇠의 출토 정황은 정형성이 없고 출토 숫자와 위치, 대형관계 등에 차이가 많아 그 사용 위치를 일률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38호와 60호 목곽묘, 그리고 22호와 11호 수혈식석곽묘에서처럼 묘곽의 장벽을 따라 다수 출토된 꺾쇠들은 ‘개관연결용설’에서와 같이 목곽의 개관 연결이나 개관을 측벽에 고정하는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 외의 위치에서 소수 출토된 꺾쇠들은 각각의 출토위치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¹⁰⁾

10) 한편 본고의 논지 전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고령 지산동 73호분(대동문화재연구원 2012)의 묘곽부 구조에 대해서도 김두철과 이희준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두철(2013)은 고령 지산동 73호분이 보고서가 말하는 목곽묘가 아니라 석곽묘라고 하면서 묘곽 안 격쇠와 관정들이 출토된 위치에 길이 2.60m~2.80m, 너비 1.60m~1.80m 정도로 폭이 매우 넓고 장대한 1개의 상형목관이 놓였을 것으로 보아 그 추정복원도까지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이희준(2016: 61~66)은 과연 그런 크기의 관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보고서의 유물번호로 보아 관정 74개, 꺾쇠 173개가 하나의 목관에 쓰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고분의 묘곽은 보고서에서처럼 충전석재에 연한 목곽(외곽) 안에 꺾쇠들로 개관을 연결한 별도의 내곽이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내곽의 장축 가운데에 목관이 놓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고분의 주곽은 묘곽 안 목곽 둘레의 충전석이 단순 충전이 아니라 축석식인 석재충전목곽묘이며, 목곽 내 부장품의 배치와 꺾쇠 및 관정의 출토상태로 보아 吉井秀夫(2000)가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복원한 것과 같은 목관이 남북 2개소에 놓인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 목관들은 밖에서 반입한 운구용 목관이 아니라 묘곽 안에서

3. 경주와 주변지역의 목곽묘 구조(도 9)

경주지역에서는 아직 원삼국 후기~신라 초기 중심 고분군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고위계 대형 목곽묘의 구조와 그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심고분군에 소재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구어리 1호가 신라 초기 경주지역 최고위계 급의 대형 목곽묘이므로(최병현 2015)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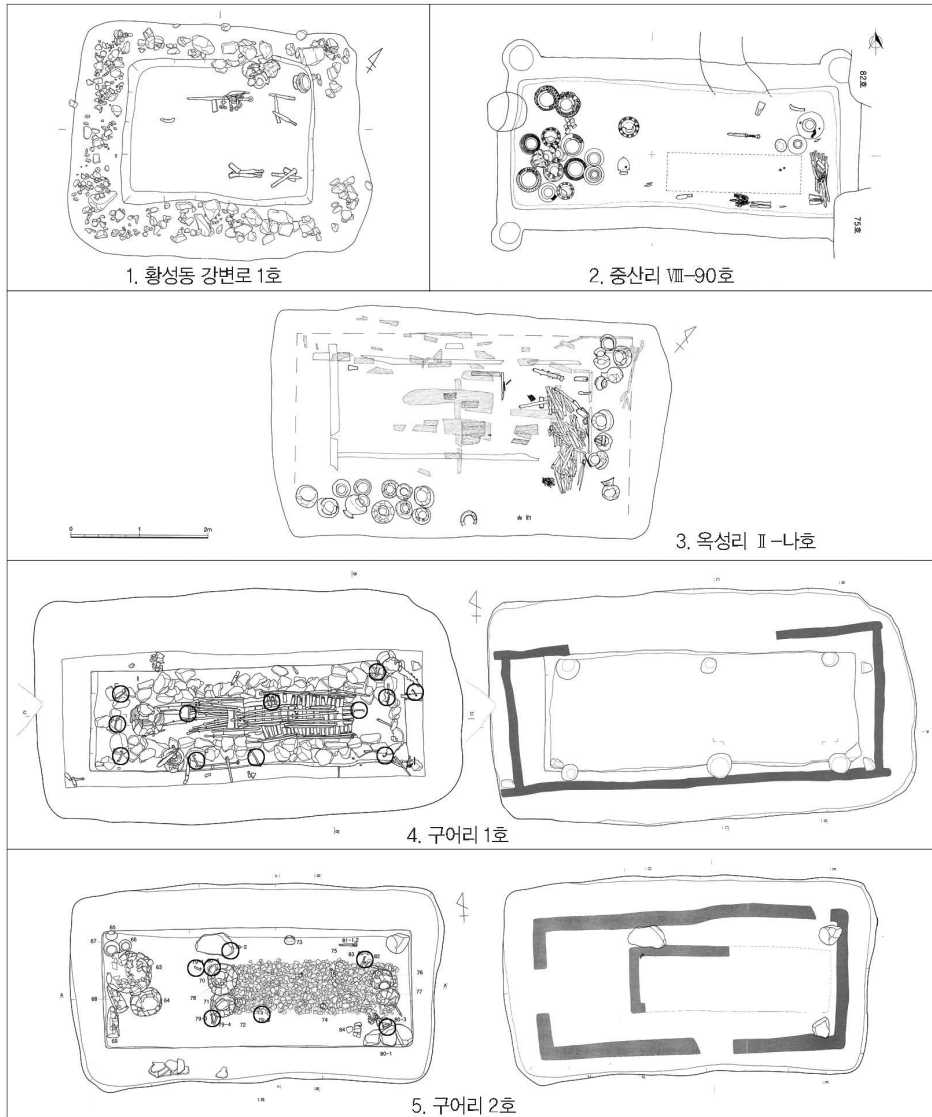
그에 앞서 원삼국 후기의 경주지역 목곽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그 평면형의 변화가 방형화와 세장방형화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최병현 2015: 127). 그런데 원삼국 후기 말, 즉 필자의 신식와질토기 2b기로 편년되는 황성동 장변로 1호 방형 목곽묘와 중산리 VIII-90호 장방형 목곽묘에서 피장자의 안치 위치는 묘곽 내 유물의 배치상태로 보아 묘곽의 중심축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의 이웃인 포항 옥성리 나 78호도 신식와질토기 2b기로 편년되는 원삼국 후기 말의 목곽묘인데, 5.72m×3.30m의 묘광 안에는 약간 북쪽에 치우쳐 불로 태워 목탄으로 변한 목곽의 잔해들이 위치해 있었다(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8). 이 목곽은 묘광 바닥에 남은 측벽의 상태로 보아 3.80m×1.50m의 규모였고, 뚜껑 등이 불탄 목탄들이 묘광 내 북쪽으로 흩어져 그 위를 덮고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 목곽 외에 묘광 내 다른 시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토층도에는 묘광 내 어깨선 밑에 충전토가 있었던 것이 보이고, 내부 목곽의 동쪽과 남서쪽 충전토 안쪽에는 토기들이 배치되었다. 통상적이라면 충전토에 접하여 목곽이 설치되었을 것이므로 규모 약 4.8m×2.6m에 이르는 외곽이었을 것이고, 내부의 불에 탄 목곽은 내곽이었을 것이지만 내부의 불에 탄 목곽 외에 다른 목곽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울산 하대 43호에서도 불에 탄 목곽의 잔해가 묘광 내 충전토 안쪽에 쌓여 있었는데, 그 양상이 대개 옥성리 나 78호와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부산대학교박물관 1997). 두 고분 모두 내외곽이 있었다면 외곽도 불에 탔을 텐데 외곽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묘광 내 목곽의 위치이다. 묘광을 기준으로, 이 목곽묘들에서도 피장자는 묘광의 중심축선 상에 안치되지 않는

조립한 '설치목판'이다. 수혈식묘곽에 2인 이상 매장된 예는 드물기는 하지만 경주에서도 월성로 가 13호묘, 계림로 14호묘 등의 예가 있다.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구어리 1호 목곽묘로 돌아와 보면, 필자의 신라 초기양식토기 1b기로 편년되는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인 구어리 1호의 주곽에는 세장방형에 가까워진 목곽 바닥에 돌을 쌓아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주조철부, 권수형장식철모 등으로 凹床을 조성하였다. 凹床 조성에 돌만이 아니라 철기가 사용된 차이가 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래 복천동유적에서는 신라 초기 2a기인 38호부터 출현한 凹床과 피장자의 목곽 중심축



[도 9] 경주지역 목곽묘(○은 꺾쇠 출토위치)

선 안치가 경주지역에서는 그에 앞서 늦어도 신라 초기 1b기에는 시작된 것이다.

한편 구어리 1호 주곽의 凹床에서도 돌 위와 그보다 안쪽의 첩기들 위에서 꺾쇠들이 출토되었다. 이희준은 이를 근거로 凹床에는 선관이나 통나무관 형태의 목관이 놓이고, 피장자 발치 쪽에서 출토된 3점의 꺾쇠를 포함하는 너비 약 1m가 조금 넘는 내곽이 목관의 좀 더 바깥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았다(이희준 2016: 66~68). 그러나 구어리 1호 주곽의 凹床에 둥근 바닥의 목곽이 놓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최병현 2015), 복천동 목곽묘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凹床이 설치된 이 목곽의 내부에 내곽이 설치될 자리는 없다. 실제 목곽의 흔적도 주혈 바깥에 세운 것의 흔적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凹床에서 출토된 꺾쇠들은 모두 목곽의 개관 연결용이거나 아니면 목곽의 양 단벽 쪽에서 출토된 것은 목곽의 개관과 단벽 고정용으로, 凹床의 중간부에서 출토된 것들은 통나무 목관의 결합용이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은 구어리 2호묘인데, 출토 토기들의 형식으로 보아 신라 초기를 지나 신라 전기 초 1Aa기로 편년된다(최병현 2013). 구어리 2호묘의 묘광 안에서는 충전토를 따라 설치된 5.40m×2.10(?)m¹¹⁾의 목곽 흔적이 있었고, 그 내부의 동쪽으로 치우쳐 바닥에 잔자갈을 깔아 平床을 조성한 목구조물의 흔적이 조사되었다. 이 목구조물은 크기 2.90m×0.98m였고, 평상의 양쪽 끝에 토기들이 놓여 있었으며, 토기들 곁에서 몇 개의 꺾쇠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이 목구조물의 규모는 월성북고분군 대소 적석목곽분의 목관(내관)보다 크고, 특히 그 너비가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분의 목관 너비 60~80cm보다도 넓은 것(최병현 1980: 표 8)이 주목된다. 또 평상의 양쪽에 배치된 토기도 고령 지산동 32호분과 구2호분, 합천 반계제 다-A호분의 ‘설치목관’ 안에 의례와 관련하여 놓였을 것으로 추정되는(吉井秀夫 2000: 252) 소형토기들과 달리 규모가 큰 호류들이다. 따라서 이 목구조물은 피장자가 직접 안치된 목관이 아니라 피장자가 안치된 바닥이 편평한 목관과 그 양쪽 토기들의 위로 설치된 내곽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꺾쇠들은 내곽의 단벽 쪽에서만 출토되어 내곽의 양쪽 끝 개관을 단벽에 고정하는데 사용된 것, 그리고 양쪽 모두 토기들의 서쪽에서 출토되어 부식된 목곽이 서쪽 한 방향으로 쓰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구어리 2호 목곽묘는 이와 같이 충전토에 접해 세워진 목곽, 즉 외곽의 안에 내곽

11) 보고서에는 너비를 다음의 내곽 길이와 같은 290cm라 하였으나 도면에서는 210cm 정도로 측정된다.

이 설치된 2중 목곽 구조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구어리 2호 목곽묘의 내부구조는 신라 초기 1b기인 구어리 1호 목곽묘의 내부구조와 확연히 달라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어리 2호는 신라 전기 1Ba기 이후인 복천동 22호, 11호 수혈식석곽묘보다 시기적으로도 이르지만, 내곽의 위치도 석곽 내 접곽 상태의 목곽이 아니라 외곽과는 사이에 공간을 두고 내곽이 설치된 중곽식의 내곽이라는 점이다.

IV. 기원 연구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영남지방 목곽묘의 전개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경주와 주변 지역에서 조영된 원삼국 후기의 대형 목곽묘들에서는 피장자의 안치 위치가 묘광이나 목곽의 중심축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목곽 내에는 칸막이 등의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복천동 유적에서는 84호 목곽묘로 보아 그러한 구조가 신라 초기 1b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주에서는 신라 초기에 들어와 목곽묘에 부곽이 발생하고 주곽의 피장자 안치 위치가 묘곽의 중심축선과 일치되면서 묘곽의 세장화가 이루어졌다. 구어리 1호 목곽묘로 보아 경주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늦어도 신라 초기 1b기에는 묘곽 바닥에 凹床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동래 복천동유적에서는 신라 초기 2a기인 38호 목곽묘부터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

동래 복천동유적에서는 순수 목곽묘, 즉 점토충전목곽묘가 충전식과 축석식의 석재충전목곽묘를 거쳐 수혈식석곽묘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지만,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에 2중 목곽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다. 복천동 22호와 11호 수혈식석곽묘의 묘곽 구조는 목곽 둘레의 축석이 실질적인 석곽 벽으로 발전하였으나 그 안의 목곽이 아직 접곽 상태로 잔존한 것으로, 그것이 황남대총 남분과 같이 내외곽 사이에 공간이 있는 2중 목곽 구조와 비교될 대상은 아니다.

유일하게 신라 전기 초의 경주 구어리 2호 목곽묘에서 2중 목곽 구조가 확인되지만, 구어리 2호와 황남대총 남분 주곽을 제외하고는 신라 초기 이후의 영남지방 목곽묘에서 2중의 목곽 구조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특히 신라 초기나 전기의 사방적석식, 즉 석재충전목곽묘에서 분명히 석단으로 고정된 내외 2중의 목곽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울산 중산리유적이 발굴되면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범주와 기원 또는 계통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일어났다. 중산리유적의 발굴자인 이성주는 신라 적석목곽분의 범주를 ‘최고 위계의 대형분’, 즉 지상적석식으로 좁혔고, 이희준은 그것을 상부적석식과 지상적석식은 물론 사방적석식, 즉 석재충전목곽묘로까지 넓혔지만, 그것들이 모두 영남지방에서 원삼국 후기부터 조영된 목곽묘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라는 데에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 이후 학계에서는 영남지방의 고분에서 적석목곽분의 선행구조, 특히 현재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지상적석식 대형분인 황남대총 남분 주곽의 선행구조나 그와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실제로 확인된 것은 없다. 경주가 아닌 지방의 초기 사방적석식에 황남대총 남분의 석단으로 고정된 내외 2중 목곽 구조의 기본 요소가 이미 존재했다는 주장은 선입관에 의한 오해일 뿐 실제로 그런 구조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포항 마산리 석재충전목곽묘의 목곽부 구조를 신라 초기에 이미 지상적석식 구조가 등장한 것처럼 단면 사다리꼴의 지상식으로 복원한 것은 명백한 과장 해석이었다. 신라 초기 이래의 영남지방 목곽묘에서 2중 목곽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도 구어리 2호를 제외하고는 동의하기 어렵다. 중산리유적의 신라 초기고분에서 호석의 발생을 타진한 바 있지만, 적석목곽분의 호석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여전히 황남동 109호분 3·4곽이 가장 이르다. 사방적석식부터 礫床式 묘곽 바닥처리의 일반성을 들고 있지만, 그것을 적석목곽분의 기본요소로 꼽기에는 궁색하다.

이와 같이 울산 중산리유적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제기된 신라 적석목곽분의 ‘목곽묘 자체발전설’에 따라 적석목곽분의 선행 구조를 찾으려는 그동안의 노력은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그로 인한 선입관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발굴조사부터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 석재충전목곽묘와 (상부적석식)적석목곽분을 구분하지 않거나 발굴보고서에 그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게 해 놓는 것(최병현 2016)이 그 시작이다. 여기저기 영남지방의 목곽묘를 근거자료의 충실한 검토나 제시도 없이 2중 목곽 구조로 복원하는 것, 지하 묘광이 얇은 석재충전목곽묘를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의 선행구조인 것처럼 복원하는 것, 황남동 110호분과 호우총, 은령총 등 기 조사된 월성북고분군의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에 넷돌 석단을 사이에 둔 2중 목곽이 설치되었다는 주장(김용성 2006, 2014)과 그것이 사실인 양 최근의 유적조사에서 순환되고 있는 것(김용성 2015: 128)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

이 대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허구들임은 앞에서 밝힌 대로이다.

‘목곽묘의 자체발전설’에 따라 그동안 이와 같이 영남지방의 고분에서 적석목곽분의 선행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 중에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신라 적석목곽분의 성립을 고구려 적석총과 관련시켜 보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김용성은 이희준의 견해를 따라 사방적석식부터를 적석목곽묘의 범주로 하면서도 “목곽과 적석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 그 연원을 굳이 따지자면 재래의 목곽묘에 적석으로 보강하는 아이디어는 고구려 적석총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신라 적석목곽묘에서 봉토를 제거하고 살펴보면 특히 초기의 사방적석식(四方積石式)으로 이해되고 있는 묘제(이희준 1996; 김대환 2001)는 고구려 적석총의 목곽묘 모습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다른 점이라고는 지하에 묘가 축조되었느냐 지상에 묘가 위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고 부연하였다(김용성 · 최규중 2007: 265). 석재총전목곽묘를 ‘위석목곽묘’라 이름하여 그 연원을 청동기시대까지 소급해 보는 박광열(2001: 58)은 그것의 한 갈래는 “4세기 3/4분기경 경주지역에서 고구려의 적석기법과 결합하여 적석목곽묘로 변화하고, 다른 한 갈래는 ‘위석목곽묘’ 형태로 적석목곽묘와 병행하여 경주와 주변지역에서 중하위층의 묘제로 지속되었다”고 한다. 사방적석식, 즉 석재총전목곽묘는 목곽묘, 상부적석식부터를 적석목곽묘의 범주로 보는 김두철(2009: 81~82)은 “현자료에서는 황남동 109호묘 3·4곽을 초현기의 적석목곽묘로 파악”한다고 하고, 자신은 “적석목곽묘도 크게 보아 목곽묘의 하나의 지역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자생론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초현기 적석목곽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호석, 상부적석과 같은 새로운 봉토축성법은 고구려를 통한 간접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사실상 이원적 계통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용성은 사방적석식, 즉 석재총전목곽묘부터 고구려 적석총에서 적석 보강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한 반면, 박광열과 김두철은 관련성의 강약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상부적석식부터 고구려 적석총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고 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디서부터 적석목곽분의 범주로 보는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신라고분에서 사방적석식인 석재총전목곽묘, 상부적석식과 지상적석식의 적석목곽묘가 순차적으로 출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석재총전목곽묘는 신라 초기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신라 전기에 출현한 적석목곽분과는 분명한 선후관계가 있지만, 적석목곽분 가운데 상부적석식과 지

상적석식의 출현 사이에 과연 상당한 시기차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월성북고분군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고분이나 현존하는 고분 모두 상부적석식이 지상적석식보다 숫적으로 월등하고, 현재까지의 발굴 고분으로는 최고의 상부적석식인 신라 전기 1Ba기의 황남동 109호분 3·4곽이 최고의 지상적석식인 2a기인 황남대총 남분보다 이른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최소한 황남대총 남분 이후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적석목곽분이 공존하고 있었음도 또한 분명하다. 문제는 지상적석식의 출현 시기가 과연 상부적석식보다 늦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올라가도 상부적석식과 동시기이거나 오히려 앞으로 소급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고에서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대형분들의 분포 상태로 보아 황남대총 남분 이전으로 판단되는 초대형 고총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최병현 2014, 2016). 황남대총 동쪽에 위치한 황남동 90호분과 황오동 39호분이 그것이다(도 10).

한편 신라 전기 초인 1Aa기의 경주 구어리 2호묘에서는 영남지방에서 유일하게 황남대총 남분보다 앞선 2중 목곽 구조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신라 초기 경주지역에서 최대의 목곽묘인 구어리 1호가 신라 초기 1b기에 구어리고분군에 돌연 출현하여 단발성으로 존재하였듯이 구어리 2호 목곽묘의 그러한 묘곽부 구조 역시 신라 전기 초에 단발성으로 돌연 출현한 것이어서 구어리고분군에서 그 앞뒤 시기의 목곽묘들과 연결되지 않는다. 구어리고분군에서 단발성의 대형 고분 출현은 신라 후기 석실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에 대해서 전고에서 언급한 바도 있다(최병현 2012a).

그러면 다른 고분군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그러한 돌발적인 현상이 구어리고분군에서는 시차를 두고 이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신라 초기 목곽묘의 전개과정에서 경주지역 중심고분군과 주변 각 지구고분군의 관계, 그와 관련하여 구어리유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최병현 2015: 145~147). 경주지역 중심고분군이나 존재하였을 법한 이혈주부곽식 대형 목곽묘가 구어리고분군에서 조영된 것은 경주지역 중심고분군 세력의 사로국 내부 통합과정에서 경주 동남부지구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구어리 2호 목곽묘의 2중 목곽 구조의 존재도 마찬가지로 구어리고분군 자체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경주지역 중심고분군에서 있는 모종의 변화가 미친 결과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해 구어리고분군에서 2호 목곽묘의 그러한 묘곽부 구조의 돌발적인 출현을 통해 역으로 신라 전기로 들어오면서 월성북고분군에서 일어난 고분문화의 변동

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변동이란 아마도 황남대총 동쪽에 위치한 초대형 고총의 출현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초대형 고총



[도 10] 경주 월성북고분군 고분 분포도

들의 내부구조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고에서 살핀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와 위계화 과정을 감안해 보면 그 초대형 고총들은 지상적석식의 적석목곽분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최병현 2016).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최병현 2014, 2015), 신라 초기의 목곽묘들도 원래 봉토묘였다고 판단되지만 월성북고분군에서 고총 봉분을 가진 신라 초기의 (점토충전·석재충전)목곽묘가 조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비록 묘곽의 일부분씩만 조사되었지만 월성로에서 발굴된 신라 초기의 대형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가 모두 봉분 없이 지하유구만 조사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묘광 너비 3.80m의 신라 초기 2a기 점토충전목곽묘인 월성로 가 29호도 그렇지만, 신라 초기 2b기의 석재충전목곽묘인 월성로 가 8호는 목곽 너비 2.00m 이상, 가 12호는 묘광 너비 3.90m, 목곽 너비 2.50m의 대형묘이면서도 봉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신라 전기 1Ab기의 대형 석재충전목곽묘인 월성로 가 5·6호와 1Bb기의 가 13호도 봉분 없이 지하유구만 조사되었다.

월성북고분군에서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가 신라 전기에도 고총화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축조되고 있었던 정황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황오동 쪽샘지구에서도 확인된다(도 11). 유구 전체가 조사된 쪽샘 C 10호는 신라 전기 1Ab기의 점토충전목곽묘인데, 호석과 봉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쪽샘지구에서는 미고지를 따라 그룹을 이루고 분포하는 적석목곽분들과는 달리 그 사이 저지대에서 호석을 두르지 않은 대소형 묘곽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점토충전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도 포함되어 있지만, 묘광선을 따라 충전 냇돌들이 보이는 석재충전목곽묘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2015년에 분포조사가 이루어진 쪽샘 G지구는 남쪽의 반 이상이 저지대인데, 이곳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목곽묘들이 동-서로 줄을 이어 드러나, 고분들의 조영이 역시 동에서 서로 진행된 것을 보여준다(최병현 2014a). 그 중 묘광 상부가 노출된 G 117호는 장방형 주곽의 서쪽에 방형 부곽이 딸린 이혈주부곽으로, 이 고분도 묘광선 안쪽으로 돌아간 냇돌들로 보아 석재충전목곽묘가 분명하다. 이외에도 석재충전목곽묘일 것이 분명한 이혈주부곽 여러 기가 C지구와 G지구에서 확인되었다. 아직 이들의 내부조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 A지구와 C지구 고분들로 미루어 보아 이들 중에는 적석목곽분 출현 이후인 신라 전기에 축조된 것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방형 부곽이 딸린 이혈주부곽은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에서도 비교적 상위 위계 고분에서 조영된 묘곽 형식이다(최병현

2016).

이러한 예들은 월성북고분군에서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제충전목곽묘는 대형묘도



[도 11] 경주 황오동 쪽샘지구 고분 현황

신라 초기 말까지 고총화되지 않았으며, 신라 전기로 들어온 이후에도 전통에 따라 고총화되지 않은 상태로 조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월성북고분군에서 고총의 등장은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황남대총 동쪽에 위치한 초대형 고총들은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일 개연성이 크며, 그렇다면 월성북고분군에서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의 출현은 황남대총 남분보다 이른 시기인 것은 물론 황남동 109호분 3·4곽보다도 더 앞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식의 출현에 선후 관계가 있었다면 상부적석식보다는 오히려 지상적석식이 먼저 출현하여 고분 문화의 변동을 선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여 월성북고분군에서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출현 사이에 큰 시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것을 굳이 구분해 보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월성북고분군에서 신라 초기에 석재충전목곽묘가 발생된 데 이어 신라 전기고분으로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적석목곽분이 출현하여, 지상적석식은 신라 왕실집단의 묘제로, 상부적석식은 그 아래 귀족집단의 묘제로 공존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적석목곽분은 큰 시차 없이 출현하여 왕실집단과 차상위 귀족집단의 묘제로 자리 잡았고, 전 시기 이래 조영되어온 석재충전목곽묘와 점토충전목곽묘, 그리고 토광묘는 차례로 그 하위의 묘제로 잔존하여 공존된 것이라 하겠다(최병현 2016).

그러면 이제 석재충전목곽묘와 지상적석식 및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 모두 그 묘곽의 형식은 신라 초기의 점토충전·석재충전 목곽묘의 묘곽 형식들을 이어받고 있어서 그 기본적인 계승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상부적석식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석재충전목곽묘와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 모두 목곽과 사방적석이 지하 및 지상 묘광부에 축조된 봉토묘라는 점에서 그 계승관계는 더 깊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적석목곽분이 출현하면서 새로 갖추어지는 구조 요소들, 즉 지상적석식에서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지상 목곽과 적석부의 그 복잡한 구조, 상부적석식에서 묘광 위의 상부적석, 그리고 양자 모두에서 원형 호석과 고대 봉토로 이루어진 고총이 ‘목곽묘의 자체발생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목곽묘가 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진화하여 단계적으로 추가되어 온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아 왔듯이 지금까지 그러한 구조 요소의 선행구조를 찾으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필자가 보기엔 사실상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대부분 선입관에 따른 왜곡이나 확대·과장 해석들뿐이었다. 그러므로 중산리유적의 조사 결과에서 비롯된 적석목곽묘의 ‘목곽묘 자체발전설’이 목곽 사방을 돌로 채운 석재 충전목곽묘와 역상식 묘곽 바닥처리가 신라 초기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밝힌 점 외에 ‘목곽묘의 자체발전설’이 제기될 때나 많은 시일이 지난 지금이나 적석목곽분의 기원 연구에 실제로 달라진 상황이나 조건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월성 북고분군에서 고총의 출현 과정은 점진적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의 돌연한 현상이었던 것이 더욱 분명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적석목곽분에서 새로 갖추어지는 그러한 구조 요소들도 목곽묘에서 차례로 발전되거나 단계적으로 추가되어 온 것이라기 보다는 고총의 출현과 함께 일체적 구조로 출현하였을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적석목곽분의 묘곽 형식, 그리고 상부적석식의 묘곽 내 목곽과 사방적석은 신라 초기 석재충전목곽묘를 계승한 것이지만, 지상적석식에서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지상 목곽과 적석부, 거대한 고총 봉분은 일체적 구조로 등장한 것이며, 상부적석식에서 묘곽 위의 상부적석과 원형 호석의 고대 봉토는 적석목곽분의 출현으로 석재충전목곽묘에 더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상적석식과 같은 고총 적석목곽분의 출현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설명을 보면 “신라식목곽묘의 전통과 범주 내에서 최고위계의 대형분 축조방법으로 특이한 발전을 보인 것(이성주 1996: 57)”이라거나, ‘고구려 남정을 계기로 사로국 지배 계층의 분화가 심해져 적석목곽묘가 여러 형태로 分岐되고,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지상식의 새로운 구조는 고총고분의 분구 高大化 지향과 맞물려서 묘곽 구조의 지상화 경향이 생기고, 적석용 木架構는 목곽 구조가 지상에 놓임에 따라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희준 1996: 296, 304~305)이라고 한다. 또 “당시 신라의 상층부가 추구하려던 집단지향, 즉 무덤의 지상화를 바라는 욕구의 실현”이라 하기도 한다(김두철 2009: 82). 모두 목곽묘로부터 자체적인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지만 물질문화의 변화·변동을 설명하기에는 실체가 잡히지 않는 막연한 추측성 발언들이다.

그러나 문화의 변화·변동은 오로지 자생적·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변 문화와 부단한 접촉, 접변, 충격도 작용한다. 신라 초기 경주지역에서 석재충전목곽묘의 발생은 현재로서는 점토충전목곽묘로부터 점진적인 변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성북고분군에서 신라 초기의 석재충전목곽묘로부터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으로의 전환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기보

다는 어느 시점, 즉 필자의 편년으로는 신라 전기양식토기가 성립되는 4세기 중엽쯤의 돌연한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신라 적석목곽분의 출현에는 무언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는 사료국 시기부터도 낙랑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해왔으며, 摺書 등 중국 사서에는 고고학적으로 신라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부터 당시 세계의 온갖 정보가 집중되는 중국에 견사하였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외부 세계와 접해 오던 신라에서 마립간시기가 되면 왕실 무덤부터 고층화를 이루어 간 데에는 주체적인 수용이든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든 어떤 자극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들을 통해 필자가 여기서 북방기원설을 재천명하거나 재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북방기원론은 신라고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 방편으로 좀 과격하고 성급하게 제시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라 적석목곽분의 출현이 북방아시아 목곽분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그 출현과정의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도 북방아시아 목곽분문화와의 비교연구는 필요하며, 역사학에서 비교사학과 같이 고고학에서도 비교고고학적 연구는 필요하다는 점만은 강조해 두고 싶다.

최근 경주 방내리유적에서는 고구려 적석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적석유구가 조사되었으며(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쪽샘지구 황오동 44호분의 적석부는 3단 또는 4단으로 축성된 지상적석부로 밝혀지고 있다(박형열 2016: 79).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의 발견으로 신라의 고분문화와 고구려 적석총의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황오동 44호분은 묘곽의 형식이 부곽이 딸리지 않은 단곽식인 점, 방내리 적석유구 내에서는 필자의 신라 후기양식토기 1a기로 보이는 늦은 형식의 장경호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모두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직접 관련시켜 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다. 신라와 고구려의 정치적 문화적 관계는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이 출현한 이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들로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출현을 고구려 적석총과 곧바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앞으로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고분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월성북고분군에서 신라 초기 고분과 초기고분으로부터 전기고분으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이 발굴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월성북고분군 자체에서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산리고분군과 같은 주변 고분군의 조사결과를 가

지고 중심고분군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려 하였고, 임당동 G5·6호분과 같은 지방 고분에서 신라 중앙의 중심고분군에서도 최고위계 고분인 황남대총 남분에 존재한 복잡한 관곽 구조의 선행 구조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궁여지책이었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전개되는 고분문화의 성격이나 방향과 어긋나 오히려 많은 억측과 왜곡을 낳았다. 경주 월성로고분 발굴조사와 쪽샘지구의 분포조사를 통해 이제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신라 조기고분의 존재와 소재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속히 이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신라 중앙의 중심고분군인 월성북고분군 자체에서 묘제의 전환 과정과 고분문화의 변동 과정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복합적인 문화의 산물인 고분 묘제의 기원이나 계통론이란 사실 쉽게 풀릴 수 없는 가설들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유구를 사실대로 이해하지 않고 왜곡, 과장하거나 상상을 가미해서 해석하는 방식은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 맺음말

1990년대 초 울산 중산리유적의 발굴조사 이후 신라 적석목곽분의 목곽묘 자체 발전설이 제기되고, 그 일환으로 그동안 이를 해명해 보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적석목곽분의 기원 연구에 실제로 달라진 상황이나 조건은 사실상 없다. 오히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의 구조를 왜곡하거나 확대·과장한 해석들이 난무하였을 뿐이다

신라가 낙동강 이동지방을 지배하는 마립간시기, 즉 신라 전기에 수도 경주의 중심고분군에 출현한 적석목곽분은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두 유형이 큰 시차 없이 출현하여 각각 신라 중앙의 왕실과 귀족집단의 묘제로 조영되었다. 그러한 적석목곽분의 구조 가운데 묘곽의 형식이나 상부적석식의 묘곽 내 목곽과 사방적석 등은 신라 초기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의 구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여, 그 기본적인 계승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지상적석식 초기 대형분의 복잡한 내부구조와 거대 고총으로의 출현, 상부적석식에서 묘곽 위의 상부적석과 호석으로 보호된 원형 고대봉토의 출현은 전시기 석재충전목곽묘로부터 자생적인 진화·발전으로 보기 어

렵다. 월성북고분군에서 고총 적석목곽분의 출현은 신라 초기 석재총전목곽묘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발전 과정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신라 전기양식토기가 성립하는 4세기 중엽쯤의 돌연한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사료국 시기에도 외부 세계와 접해왔고, 고대국가로 성립하면서 중국에 견사하는 등 외부 세계와 접촉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한 신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마립간시기에 적석목곽분이 출현하여 왕실 무덤부터 고층화한 데에는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이나 충격도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의 변화·변동은 오로지 자생적·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변 문화와의 부단한 접촉, 접변, 충격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상이 신라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관련하여 아직 필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학계에 제시된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이나 계통론은 사실 모두 쉽게 증명되기 어려운 가설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은 더욱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자설을 주장하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거나 확대·과장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자료의 왜곡, 확대·과장 해석보다는 차라리 미래의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하다.

투고일 2016.8.31 | 심사완료일 2016.9.27 | 게재확정일 2016.9.30

참고문헌

- 姜仁求, 1981, 「신라 積石封土墳의 구조와 계통」, 『韓國史論』7,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 高久健二, 1995, 『樂浪古墳文化 研究』, 學研文化社.
- 國立慶州博物館, 1999, 『盈德 槐市里 16號墳』.
- 國立博物館, 1948, 『壺杆塚과 銀鈴塚』.
- 國立中央博物館, 2000, 『慶州 路東里 四號墳』.
- 吉井秀夫, 2000, 「대가야계 수혈식석곽분의 “목관”구조와 그 성격-못·격쇠의 분석을 중심으로-」, 『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20周年紀念論叢』, 慶北大學校 人文大學 考古人類學科.
- 金大煥, 2001, 「嶺南地方 積石木槨墓의 검토」, 『嶺南考古學』29, 嶺南考古學會.
- 金斗喆, 2007, 「소위 四方式積石木槨墓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考古廣場』1, 釜山考古學研究會.
- , 2009, 「積石木槨墓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古文化』73,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 , 2010, 「棺床과 前期伽耶의 墓制」, 『한국고고학보』75, 한국고고학회.
- , 2013, 「伽耶 轉換期の 墓制와 繼承關係」, 『考古廣場』13, 釜山考古學研究會.
- 金元龍, 1972, 「韓國文化의 起源」, 『文理大敎養講座』제1집,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 김용성, 2006, 「호우총 · 은령총의 구조와 성격」, 호우총 은령총 발굴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 2007, 「신라 적석봉토분의 지상식 매장주체시설 검토」, 『韓國上古史學報』56, 韓國上古史學會.
- , 2014,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승의례와 그 변혁」, 『中央考古研究』15, 중앙문화재연구원.
- , 2015, 『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김용성·최규중, 2007, 「적석목곽묘(積石木槨墓)의 새로운 이해」, 『石心鄭永和敎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刊行委員會.
- 金宅圭·李殷昌,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 嶺南大學校 博物館.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2, 『高靈 池山洞 第73~75號墳』.
- 毛利光俊彦, 1983, 「新羅積石木槨墳考」, 『文化財論叢』,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紀念論文集,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天馬塚』.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 , 1994,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
- 文化財研究所, 1981, 『安溪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 朴光烈, 2001, 「新羅 積石木槨墓의 開始에 관한 檢討」, 『慶州史學』20, 慶州史學會.
- 박진욱, 1964, 「신라 무덤의 편년에 대하여」, 『고고민속』4, 사회과학원출판사.
- 박형열, 2016, 「신라 지상식 적석목곽분의 발생에 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75, 영남고고학회.
- 복천박물관, 2009, 『복천동고분문화』.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東萊 福泉洞 93·97號墳』.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3, 『동래 복천동고분군I』.
- , 1990, 『동래 복천동고분군II』.
- , 1997, 『蔚山下岱遺蹟-古墳I』.
- , 2012, 『동래 복천동고분군IV-35·36호분』.

- 申敬澈, 1985, 「古式鎧子考」, 『釜大史學』9, 釜山大學校 史學會.
- 嶺南大學校博物館, 1999,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IV-造永 CI・II號墳-』.
-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浦項玉城里古墳群II-나地區-』.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1, 『慶山林堂洞遺蹟II-G地區 5・6號墳-』.
- 李盛周, 1992, 「蔚山 中山里遺蹟 發掘을 통하여 본 新羅墓制의 起源」, 제1회 영남고고학회 발표 및 토론회, 영남고고학회.
- , 1996, 「新羅式 木槨墓의 展開와 意義」,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제2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韓國考古學會.
- 이재현, 2004, 「古代 南東海岸地域의 墓制樣相-木槨墓에서 木槨墓까지-」, 『고대의 남동해안 국가형성』, 제8회 복천박물관 학술세미나, 복천박물관.
- 이재홍, 2007,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현과정에 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43, 嶺南考古學會.
- 李賢珠, 2006, 「적석의 사용례로 본 4세기대 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복원」,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論叢刊行委員會.
- , 2010, 「考察:1. 墓制-棺과 槨의 구조에 대하여」, 『東萊福泉洞古墳群-第5次發掘調査 38號墳-』, 福泉博物館.
- 이희준, 1996, 「경주 月城路 가-13호 積石木槨墓의 연대와 의의」,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 , 2016, 「영남지방 3~5세기 목곽 구조 복원안들의 종합토론」, 『아외고고학』25, 한국매장문화재협회.
- 朝鮮總督府,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 , 1937, 『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吳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 崔秉鉉, 1980,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上)」, 『韓國史研究』31, 韓國史研究會.
- , 1990, 「新羅 積石木槨墳의 起源」, 『李載堧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 , 1990, 「新羅古墳研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 1998, 「新羅 積石木槨墳의 起源 再論」, 『崇實史學』12, 崇實大學校 史學會.
- , 2000, 「皇南大塚의 構造와 新羅 積石木槨墳의 起源・變遷」, 『皇南大塚의 諸照明』, 第1回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 , 2012a, 「경주지역 신라 황혈식석실분의 계층성과 고분 구조의 변천」, 『한국고고학보』83, 한국고고학회.
- , 2012b, 「신라 초기양식토기의 설정과 편년」, 『嶺南考古學』63, 嶺南考古學會.
- , 2013,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성립」, 『고고학』12-1, 중부고고학회.
- , 2014a,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한국고고학보』90, 한국고고학회.
- , 2014b, 「5세기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편년과 신라토기 전개의 정치적 함의」, 『고고학』13-3, 중부고고학회.
- , 2014c,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연구의 현황」,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엄: 금관총과 이사지왕, 국립중앙박물관.

- , 2015, 「신라 초기 경주지역 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내부의 통합과정」, 『한국고고학보』95, 한국고고학회.
- , 2016,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 『文化財』49-3, 국립문화재연구소.
- 崔鍾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6, 釜山大學校 史學會.
- , 2012, 「福泉洞高塚群의 禮制」, 『考古學探究』11, 考古學探究會.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포항 마산리 149-4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X-경북4』.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확장공사(제4공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서 (방내리고분군)』.

Research Directions on the Origins of the Silla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Choi, Byung-Hyun (Soongsil University)

During the Maripgan period, also known as the Early Silla phase, when the Silla state controlled the region east of the Nakdong River,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were constructed in the central burial grounds of the Gyeongju region, the capital of Silla. Thes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comprise two subtypes that appear almost simultaneously: the subtype with an above-ground burial chamber and the subtype with a subterranean burial chamber. They were used as the burials of the royalty and the aristocracy of the Silla center, respectively. Some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such as the burial chamber structure or the use of wooden panels or the packing of stones (in the case of the subtype with the subterranean burial chamber), can be understood as having been inherited from the wooden chamber tomb embellished with packed stones or packed clay of the Incipient Silla phase. As such, a continuity of traditions can be proposed. However, there are also elements that cannot be regarded as having developed from these earlier types of tombs. They are 1) the complicated internal structure of the early, large-scale, wooden chamber tombs that had burial chambers located above ground; 2) the construction of the enormous 'high mounds'; 3) the addition of stones on top of the wooden burial chamber structure (in the case of the wooden chamber tomb with a subterranean burial chamber); and 4) the use of a circular earthen mound surrounded by a circle of protective stones. As such, the appearance of stone chamber tombs with stone 'high mounds' at the Wolseong North Burial Grounds can be regarded as a phenomenon that appeared abruptly around the mid-4th century, when the Early Silla pottery style came to be established, rather than as the result of a gradual development from the wooden chamber embellished with stone packing of the

Incipient Silla phase.

Even during the Saroguk phase, Silla established links with the outside world; with its formation as an ancient state, Silla continued to maintain these links, for example sending envoys to China. During the Maripgan period, which witnessed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illa stat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emerged and those used as royal tombs came to be embellished with ‘high mounds’. It may be that this change was generated by foreign influences.

The author’s basic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by which the Silla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originated, as outlined above, is admittedly based on assumptions that are not easily proven – this is the same for other theories regarding the origins and lineage of this tomb type. Following the excavation of the Jungsan-ri site, in Ulsan, in the early 1990s, some researchers have come to propose that the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developed indigenously from the wooden chamber tomb. However, although much effort has come to be invested, this has yet to be proven. In the meantime, interpretations based on distortions or exaggeration of the structure of wooden chamber tombs or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have been rife. As such, it can be argued that efforts to prove the proposed theories regarding these tombs must be based on facts, and that a distortion or exaggeration of these facts should be discouraged. A better strategy may be to sit back and wait for the future discovery of new archaeological material.

Key words : Incipient Silla phase, Early Silla phase, wooden chamber tombs embellished with packed stones,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in Gyeongju